

리아호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가, 20쪽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 42쪽

크고 넓은 건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48쪽

어린이 여러분의 모범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67, 71쪽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계절 내내 성도가 됩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자립 특집 기사
- 18** 감사에 대한 기도
크리스티 스크리낙
우리 가족은 절실하게 축복이 필요했다. 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 20**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자비로울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는 손을 뻗어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 26** 그리스도와 같은 자비
랜디 엘 데이벨
경전에 나오는 구주의 생애에서 우리는 자비로워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30** 교리는 어떻게 확립되는가?
라린 포터 건트
이 순서도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교리를 밝혀 주시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32**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의로운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히카리 로프터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토드 실베스터 형제는 현재의 청년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 중이다.
- 36** 여전히 분명한 메시지
리차드 엠 롬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현대의 자유의 가치로서 가족에게 명확함과 인도를 제공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신권은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주님은 나에게 소리치신 적이 없다
익명
- 14** 복음 고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6** 교회 소식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가장 길었던 성찬식
오컨 에데트 에피웅

표지
앞: 잃어버린 양 뉴엘 캔버스 와이어스 코비 대학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복제함. 뒤: 사진 © Thinkstock 앞 표지 내부 사진: 사진 촬영 서지 레이몬드

42



42 그의 은혜가 족하니라

브래드 월콕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기적은 단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예수님은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셨다



52

46 행복으로 가는 단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적게 받기보다는 더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48 크고 넓은 건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데니스 시 건트
크고 넓은 건물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2 친구에게 빛이 되십시오

벤자민 데 호요스 장르
선교 사업은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시작됩니다

54 해답을 찾아서

5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음악의 영향력

로즈메리 워슨
건강한 음악을 택하는 것에 관해 생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8 내 마음의 기도

마 콘수엘로 엔
주님의 말씀은 음악을 더욱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9 포스터: 여러분의 미래를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60 선교 임지에서: 얇은 벽을 통해서
모니카 가르시아 애덤스
듣는 사람은 솔대드만이 아니었다. 후안도 벽 반대 편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62 살아 있는 선지자로부터 배우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르
선지자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질문.

64



64 올바르게 쓰기

젠 핀보로우
카라의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이 모두 한 분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66 노래: 예수님은 나의 목자

태미 시미스터 로빈슨

67 충실한 모범

진 에이 스티븐스
홍콩에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인 모범은 와드 회원들의 마음속에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한 신앙을 심어 주었다.

68 유적지 탐방: 나부 성전과 카테지 감옥

제니퍼 메디

70 특별한 증인: 성경과 물문경을 둘 다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엘 톰 페리 장르

71 저는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에크니 비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시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72 우리들 이야기

74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나는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조지 앨버트 스미스

2013년 9월호 제50권, 제9호
리아호나 107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책임편집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하: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엘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톨슨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나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알리사 젠데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티,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폴라, 게리 에이치 가트,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히카리 로프터스,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패이 피 앤드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콜린 힐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영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케이 낚스, 가일 타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0호, 제50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일: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광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_fm_2420_50_e_north_temple_st_salt_lake_city_ut_84150_0024_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웨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3 Vol. 37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사진 촬영: 코디 벨

“크고 넓은 건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48쪽: 가족들과 함께 이 기사를 읽는다 식구들에게 교회의 표준대로 생활하기가 난처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느꼈던 때와 배운 점을 이야기해 준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가족은 선택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더 알기 위해 모세서 4:1~4; 니파이후서 2:14~16, 22~27; 여호수아 24:15; 모사이야서 2:4; 교리와 성약 82:10; 교리와 성약 130:20~21을 읽어도 좋다. 그런 다음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찬송가, 163장) 또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다른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다.

“올바르게 쓰기”, 64쪽, 그리고 “저는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71쪽: 이 이야기에서 카라와 에키니는 어떻게 진리를 위해 설

방법을 찾았는지를 들려준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야서 18:9)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토론할 수도 있다. 간증을 나눌 방법에 관해 즉석 의견 발표를 하고 금주에 그 일을 할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의 가족은 활동으로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경전 이야기를 읽거나 살피면 후 다음 이야기의 인물을 실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의 예로는 나쁜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다니엘 1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스테판(사도행전 6~7장), 판을 구하자고 형들을 격려하는 니파이(니파이전서 3~4장)를 들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2, 36

간증, 64

감사, 18

경전, 40, 70

계명, 46, 71

계시, 30, 62

공의, 20

교리, 30

교육, 59

교회 역사, 7, 68

기도, 18, 58, 60, 72

기적, 76

모범, 32, 38, 40, 52, 67, 74

물문경, 70

봉사, 74

선교 사업, 40, 52, 54, 60

선지자, 30, 62

선택의지, 48

성경, 70

성신, 12, 41, 56, 72, 80

성전, 68

성찬, 80

신권, 10

신앙, 39, 72, 76

십일조, 67

역경, 4, 18, 48, 71

예수 그리스도, 26, 66, 76

육체적인 건강, 54

은혜, 42

음악, 56, 58

자립, 7

자비, 20, 26

자유, 20

정결, 54

조지 앨버트 스미스, 81

지혜의 말씀, 71

청지기 직분, 80

회개, 2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사계절 내내 성도가 됩시다

저에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편엽서 사진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멋진 곳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에는
순백의 눈이 산과 시가지를 덮어 겨울 정취를 만끽하게
해 줍니다. 봄이 되면 봄비가 대지를 적서 초록 옷을 입은
생명들이 용솨음쳤습니다. 여름에는 고요하고 푸른 창공에
빛나는 태양이 작열했습니다. 화려한 가을은 자연을 주황,
노랑, 빨강색으로 물들여 놓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모든
계절을 좋아했으며, 지금까지도 각 계절의 특징과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느 계절은 파스하고
유쾌합니다. 그렇지 못한 계절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날들은 달력 속의 사진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고
삶을 깊은 절망과 분노, 쓰라림 속으로 몰아넣는 날들과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처럼 완벽한 날로만 차 있으며, 절기가
바뀌더라도 불쾌한 때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폭풍처럼 거센 시기를 겪는 동안 커다란
성장을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당초에 계획된 존재로 성장하려면 필멸의 여정 동안 역경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물론경의 선지자
리하이이는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니파이후서 2:11)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달콤함을 일깨워 주고, 돋보이게 하며, 감사하게 해 주는
것은 인생의 쓰라림입니다.(교리와 성약 29:39, 모세서 6:55 참조)

브리검 영 회장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될 모든 예지의 존재는 영광과 승영을
얻기 위해 예지의 존재가 경험하도록 예정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필멸의 존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
주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 온 시련과 경험은 전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입니다.”¹

관건은 우리가 역경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의 계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기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고는
우리가 폭풍우를 견뎌 낼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부닥치는 도전을 극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영생이라는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계획된, 소중한 지식인 그분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큰 흔들림을 겪을지라도 진리와 의를 굳게



붙들기 위해 힘과 용기, 고결함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경험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며 구주의 발자취를 꾸준히, 성실하게 따르도록 명을 받은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마태복음 5:45)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렵고 불공평하기까지 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만일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항상 기도하[며] 또 믿[는다면] ……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걷는다면] ……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강조체 추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날씨가 어떻든, 또 계절이 어떻든 간에 기쁘고 즐겁게 봉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거룩한

믿음, 치유하는 소망, 천국과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계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계절과 관계없이 그분의 빛을 따라 걸으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제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이며, 하늘의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성도가 됩시다. 사계절 내내 성도가 됩시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61~262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제 일회장단은 “찬송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찬송가, ix) 라고 가르쳤다. 이 말씀에 관해 토론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다음 찬송가나, 역경을 참는 것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 본다. “굳도다 그 기초”(35장), “주님은 내 목자니”(99장), 또는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149장). 어떤 영감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폭풍우가 치던 시절이 축복으로 판가름이 난 때를 이야기한다.



나는 슬픔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취안 추

내 친구인 첸 형제 내외가 우리 와드에서 침례를 받자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뻐다. 두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 1년 후에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은 그들에게 인봉되었다. 첸 내외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러다가 첸 형제는 이듬 해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사고가 있을 후, 첸의 죽음은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따금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거듭해서 외쳤다. “왜지? 주님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시는 거지? 왜 그런 일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일어나야 했던 거지?” 이런 의문들로 고심하던 어느 날, 나는 공과 교재를 펴고,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읽게 되었다.

“필멸의 생을 삶의 전부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고통, 슬픔, 실패, 그리고 짧은 삶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전세의 과거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까지 멀리 펼쳐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

우리는 자신의 힘을 시험할 수 있도록 유혹에,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질병에, 불멸의 존재가 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죽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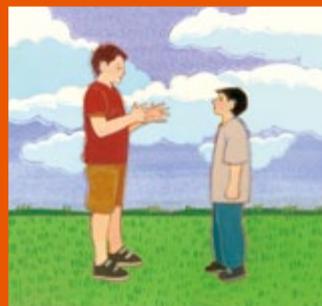
그 순간 나는 슬픔을 떨쳐 버리고 약속된, 또한 실현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첸 형제가 가족과 행복하게 재회하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그 장면에서 나는 평화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경에 대처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글쓴이는 타이완 출신이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15쪽.

사계절 내내 봉사하십시오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날씨가 어떻든, 또 계절이 어떻든 간에 기쁘고 즐겁게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어린이들은 계절별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쓰이는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난에 있는 물건을 왼쪽 난에 있는 그림과 맞추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reliefsociety.lids.org에 접속한다.



자립

자립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이다.¹

우리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자립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도움 기회를 맞게 되며, 그것으로 그들은 역경의 시기를 견뎌 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하도록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할 특권과 의무가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영적인 자립과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즉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 희생할 때, 우리는 개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²

헤일즈 장로는 현세적으로 자립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중등 과정 후의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는 것을 배우며,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채를 피하고 지금 저축을 함으로써 미래에 교회에서 전임 봉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현세적, 영적 자립의 목적은 나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이름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들어 올려 주려는 데 있습니다.”³



성구에서

마태복음 25:1~13, 디모데전서 5:8, 엘마서 34:27~28, 교리와 성약 44:6, 교리와 성약 58:26~29, 교리와 성약 88:118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6.1.1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성찬, 성전, 희생 봉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4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36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년), 51쪽 참조.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오지 사막이었던 솔트레이크밸리에 후기 성도들이 모이자 브리검 영 회장은 성도들이 번영하고 완전히 정착해 살 집을 짓기를 바랐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립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서도 영 회장은 여성들의 역량과 재능, 충실함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깊이를 신뢰했으며, 특정한 현세적 의무를 다하라고 독려했다. 오늘날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특정한 의무는 종종 다를 때가 있을지라도 그 원리만은 변함이 없다.

1. 일을 사랑하고 나태함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
2. 자립 정신을 키운다.
3. 건강, 교육, 고용, 재정, 음식, 기타 생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4. 어려움을 헤쳐 나갈 신앙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5.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준다.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내가 보살피는 자매들이 현세적, 영적 필요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가?
2.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봉사를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함으로써 영적인 자립심을 키우고 있는가?

2013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아프리카에 비치는 빛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몇 년 전, 저는 아내 해리엇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후기 성도들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서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아프리카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가난을 목격하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쳤고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과 안전을 찾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회원 중 많은 분이 그토록 처절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훌륭한 회원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집회소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근심과 어둠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빛을 받고



기쁨에 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서 느끼는 그들의 행복은 우리에게까지 번져서 우리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꾸밈없는 웃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 소중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건물에 전기가 나가 버려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 눈에 회중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밝고 아름다운 웃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어둠이 계속되었고, 저는 아내 곁에 앉아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따라 부르고, 이어서 더 많은 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곧이어 감미롭고 좌중을 압도하는 합창이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이 교회 회원들에게 찬송가 책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과 성을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다하여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고 제 영혼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다시 들어와 실내를 빛으로 채웠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 바라보며 둘 다 뺨이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교회 건물과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참으로 감명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6쪽에서 발췌.

생각해 볼 질문

- 하나님의 빛이라는 희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빛을 따라 걷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 복음의 빛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복음 원리(2009), “성신”, 31~33쪽; LDS.org의 복음 주제, “희망”, “성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무한한 소망의 힘,”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1~24쪽.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신앙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인내하십시오.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인도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도 인내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온전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분께서는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 그러므로 인내하고 친절하고 관대해집시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결혼의 신성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완전한 성적 절제와 결혼 관계 안에서 기울이는 전적인 충실함으로, 이 성스러운 통로의 신성함이 보호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2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각각의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줍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제 믿음으로 인해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견딜 수 있을까요? 로버트 디 헤일즈,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48쪽 참조
-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내게로 오라”, 22쪽, 그리고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29쪽 참조
- 남녀간의 결혼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41쪽; 엘 휘트니 클레이튼,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83쪽; 엘 톰 페리,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86쪽 참조
- 신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18쪽 참조
-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합니까? 쿠엔틴 엘 쿡,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32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구속”, 109쪽 참조

신권은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권세의 일부를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부여하셨다. 이 위임된 권세를 신권이라고 부른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병자를 축복하고, 구원에 필요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받는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교리와 성약 121:36)고 밝히셨다. 따라서 신권은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권 권세와 권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부여되는 권한인 신권 권세[는] …… 안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권 권능은 오직 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에만 주어집니다.”¹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므로 그분은 신권 사용을 위한 합당성의

표준을 세우시고 이를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밝혀 주신다. 신권 소유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및 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함으로써 합당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성신을 동반하면 자신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교리와 성약 121:34~46,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69쪽을 참조한다.

주
1.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8~19쪽

신권을 보호하고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능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며 혼자서 죄를 은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되고 불의한 야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하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물러가며 주의 영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그 권세를 잃게 됩니다. ……

[신권]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신권이 충만하면 그 권세는 죽음의 휘장을 넘어 앞으로 전개될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신권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신권을 옹호하며,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하며, 이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8, 61쪽

신권 소유자는 신앙과 순종을 통해
신권 권능을 얻는다:



성전에서 예배한다.



아내와 자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부름을 충실히 수행한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한다



요청이 있을 때
신앙을 행사한다.

주님은 나에게 소리치신 적이 없다

익명

나는 큰아들이 사탄의 덫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느꼈으며, 종종 화를 내어 걱정을 토로했다. 나는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힘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했다

우 리 네 아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편과 나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고 큰 사랑으로 꾸준히 복음 안에서 키운다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여겼다.

어느 여름 날 우리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열네 살 때 큰아이는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다. 내가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그 아이 손에 담배가 들려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다. 아이는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불행히도, 아들의 거짓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들은 우리와 더욱더 거리를 두었다. 더 이상 아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으며, 아들은 이따금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다. 담배뿐 아니라 술과 마약, 천박한 말, 수많은 거짓말이 더해졌다. 식구들에 대한 아들의 행동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에 우리는 아들을 보호하고자 행동거지를 제한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것은 반항심만 더 키우게 되었다. 우리의 훈육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아들을 나무라며 달라져야 한다고 타이르다 보면, 대화는 목청을 높이는 논쟁으로 비화하기 일쑤였으며 아들과 나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다.



우리 부부는 큰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무척 힘들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도를 구했지만, 큰아들이 것처럼 위험한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느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동안, 엄격한 규칙으로 아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심한 역효과를 낳고 또 상식을 벗어나는 듯이 보였지만, 아들의 행위를

말리려고 한 이전의 시도 역시 모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행동이 식구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때만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주님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상황은 악화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불신과 낙담을 떨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남편과 함께 꾸준히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봅시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내력을 시험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조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응답이 올, 주님의 때가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축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신앙이 있으면 이 방향하는 가족이 버림받지 않고 사랑하는 구주의 보살핌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봅시다. 다른 이의 약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장점만은 늘 인정해 줍시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1쪽.

애썼지만, 우리가 부족했던 때와 아들에 대해 잘못 처신했던 때를 모두 떠올리자 죄책감이 엄습해 왔다. 나는 엉엉 울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으며, 또 어떨 때는 너무 탈진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 때조차 있었다.

우리가 알았던 것과 같은 가정생활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정의 밤은 어김없이 혼란과 논쟁으로 끝났다. 특히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으며, 그것을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표출했다.

남편과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계속 주님과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기로 하고, 가정의 밤은 하고 싶은 아이들하고만 자발적이고 격식이 없게 하려고 힘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나는 큰아들이 사탄의 뜻에 빠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또 우리 곁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듯 보였던 희망을 품고서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특별히 힘들었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나는 위안과 격려의 말을 듣기 바랐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 나는 아들과 그토록 소리 높여 논쟁한 것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다.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소리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도 나는 아이들에게 줄곧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나는 그 축복에서 아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내 걱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권고를 추가로

받았다. 나는 내가 화를 내고 비난한 일이 실제로는 아들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끊임없이 아들을 공격하고 아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옹호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내 행동을 바꿀 방법을 모색했다.

그 당시 나는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교회의 젊은이들과는 어머니로서 겪는 감정적인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들을 차분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제3자의 눈으로 보기로 했다. 많은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 이 방법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제 열여덟 살이 다 된 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아들의 훌륭한 성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아들에 대한 나의 감정과 염려를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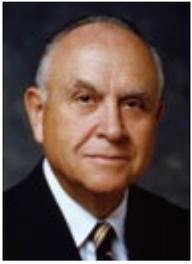
그 일은 우리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아들과 여러 가지 일을 상의했으며, 아들에게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방법을 조언해 주기만 했다.

서서히, 아들은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이제 아들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존중이란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아들의 생활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망가져 있지만,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며, 또 무엇이 변함없는

만족을 가져다주는지를 점차 알아 가고 있다.

주님의 권고대로 하자 우리 가족은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생활의 틀을 짜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 자신과 가정생활의 틀을 짜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는 아이들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뜻과 권고를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 부부는 알게 되었다.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906~2004)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1976년 1월 8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200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봉사하던 시절인 1974년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영어로 된 전문은 LDS.org에 있는 1974년 5월호 Ensign을 참조한다.

제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증거는 성신의 축복과 영향력을 통해 제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우리에게 동정심과 용서를 가르치시고, 모두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두에게 화평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현대인은 고대와 후기의 진리, 곧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견고 이야기를 나누며 얻게 된 진리와 영적 경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뜻했을까요?

마가는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자 [두 천사]로부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마가복음 16:7)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히 베드로에게 알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 단정하게 개어 놓은 세마포와 주님의 머리를 썼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찢려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 그러자 확신의 깊이가 새로워진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사도행전 2:38)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천 명의 영혼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선임 사도가 지닌 영과 권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요한이 보여 준 확신의 깊이와 그 열렬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정말 의심 없는 확신이었습니니다. 요한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한복음 1:1, 3~5)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며 서반구에 나타나셨을 때, 니파이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뜻했는지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곧이어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보았으니”(제3니파이 11:10, 15)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 있었으며, 그랬기에 그들은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나? 현대의 소년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일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현대인의 마음에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이 사라져서는 안 되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간증이 기록된 까닭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이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불확실과 의심을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는 간증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 또 그분께서 하나님과

인간, 양쪽 혈통을 지닌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과 구속이라는 필수적인 사명을 수행하도록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성도와 죄인 모두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진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난 죄를 용서받고 승영할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사람이 과연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보다 더 고귀한 개념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심이 되시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분은 모든 것을 뜻한다고 간증드립니다. ■

구두점, 대문자 사용 및 인용을 표준화함.



현대인은 고대와 후기의 진리, 곧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얻게 된 진리와 영적 경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방문 교육 주제

2013년 10월부터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과 그분의 여러 역할 및 속성에 집중될 예정이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보여 주셨다.”라고 나온다. 구주의 역할과 속성을 공부하고 집중함으로써 교회 자매들은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울 것이며² 그들이 봉사하는 자매들과 함께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토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서로 돌보고, 강화하며,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셨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셨다.³ 방문 교육은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기회이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방문 교육이 온 세상 사람들을 돕는 주님의 계획 중 일부이며…… ‘그분은 적절한 방식을 정하셨습니다.’”라고 간증했다.⁴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⁵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105쪽.
2. 모로나이서 7:48 참조.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05쪽;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9.5 참조.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10쪽.
5.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12쪽.

FamilySearch [패밀리 서치]에 10억 개의 기록이 추가됨

알스코트 로이드
처치 뉴스

교회의 방대한 계보 기록의 색인 작업(디지털화)을 하는 전 세계의 자원 봉사자들은 2013년 4월 19일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그날 그들은 7년도 채 되지 않아 10억 개의 검색 가능한 기록을 교회의 FamilySearch [패밀리 서치]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자원 봉사자들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초출 및 색인 작업을 해 왔으나 2006년 9월, 가족 역사부가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면서 실제로 어느 누구나 지역에 관계 없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색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FamilySearch [패밀리 서치] 사이트의 위키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문서의 주요 출처는 240만 개의 마이크로필름이며 이 마이크로필름에는 110개의 국가와 공국에서 온 역사 문서의 사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문서에는 인구통계 기록, 출생 및 사망 증서, 결혼 증서, 입대 및 재산 기록, 기타 지역, 주, 국가 정부가 보유하고 온 중요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TI



대학 졸업생들에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씀한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가 2013년 4월, 미국 유타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 영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다. 그는 삶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했고 가족, 일, 학업, 봉사, 자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장로는 졸업생들에게 검소하게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알게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여러분의 수입 안에서 생활했을 때 안정과 평화가 온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일은 모든 후기 성도 가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넬슨 장로의 북아시아 지역 방문

2013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다. 넬슨 장로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시아 지역 회원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메시지는 화평과 기쁨의 메시지이며, 그 목적은 가족을 강화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함께 묶고,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사람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연결하여 ……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넬슨 장로는 그 지역 전역의 신권 지도자들 및 회원들과 만났으며 오키나와에서 특별 미군 지방부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두 명의 일본 지방 정부 관계자를 접촉했다.

다가오는 연차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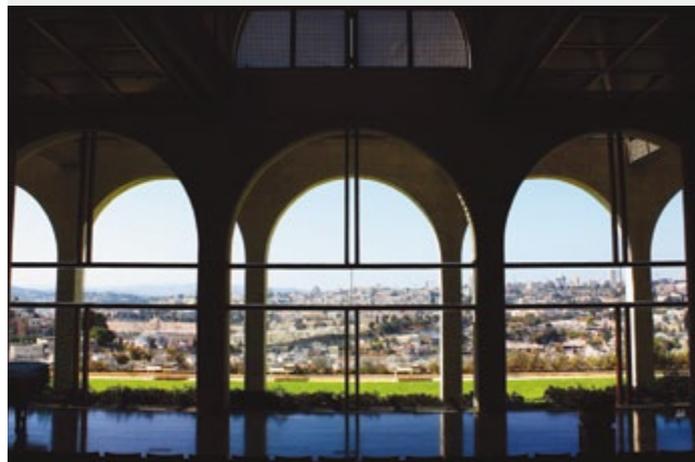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회원들과 나누는 연차 대회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4월 연차 대회와 관련한 한 경험을 소개한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연차 대회

브리검 영 대학교 중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의 60여 학생들은 지난 4월,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일요일 연차 대회 모임을 시청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모임을 해변 근처에 있는 한 오두막 집에서 시청했다. 학생들은 10일간의 여행 일정 중에 갈릴리에 머물렀다. 그들은 연차 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감사함을 느꼈다.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제니 스미스선은 “고대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후기 선지자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고 말했다.

BYU 예루살렘 센터에서 본 전경



© RI

감사에 대한 기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는 기도로 요청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감사 기도만 할 수 있을까?



크리스티 스크리낙

오래 전에 남편과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했고 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 어렵사리 저축한 돈은 비싼 담보 대출금을 갚고 예상치 못한 상당한 지출을 하는 데 써야 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고난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중 어느 달은 집 수리비와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감봉 등으로 무척이나 힘들게 보냈다. 저축한 돈은 금세 사라졌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스트레스에 짓눌린 나머지 우울감에 빠져 자포자기한 상태였기에 아이들과 가족을 제대로 돌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위안을 찾으려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의 심연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는 않게 되었다.

여러 달 동안 도움을 간구하던 나는 좀 더 열렬히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와 경전 속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한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에 더 깊이 감사를 표하고 가족과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구하는 것은 조금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한 주 동안 매일같이 하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감사에 대해서만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느끼기에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는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간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신단 말인가?

그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해 보기로 했다. 곧 나는 내 기도가 여태껏 일방적인 요청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되찾았고, 내 문제를 넘어서 내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자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다른 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위안이 찾아왔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성구가 있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마태복음 6:30) 나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구를 떠올리며 겸손해졌다. 나는 감사 기도를 통해 진정한 겸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한 주가 지나자 내 기도는 “음식과 옷, 거주할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잘 지켜 주시며 계속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을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기억난다. “당신께 의지할 수 있어서, 또 저희를 살피 주시고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준비하고 계신 길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내 기도는 단순히 감사나 겸손이 아닌 신앙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나는 축복을 구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 놀랄 만큼 성장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종종 초기 성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내가 과연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았다. 며칠이 더 지나서 우리는 정들었던 집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은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집이 팔리는 축복을 받았다. 예상대로 큰 손해는 보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현세적으로도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 경험에서 얻은 기적은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집이 팔렸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신앙을 발전시키고 이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감사를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했기에 나는 위로와 평안, 인도를 받으며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사에 대해 새로 얻은 간증은 감사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신앙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에 산다.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98~101쪽 참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저는 우리가 다시 구주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며, 그분께 충실하다면 거리낌 없이 가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몸에서 결박과 구금,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목숨을 버리신 흔적을 보게 될 것임을 압니다.

공의와 자비

그 졸업식은 제가 여태껏 참석했던 어느 졸업식과는 달랐습니다. 졸업생은 44명이었는데,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학사모와 가운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늘색 데님 셔츠와 남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린 곳은 체육관도, 경기장도, 훌륭한 강당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유타에 있는 어느 교도소의 단출한 다종교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졸업반은 1년짜리 성경 학습 과정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가 후원하는 것이었으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보이는 한 젊은이가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긴장했으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장 강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10년째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폐회 기도는 45 내지 50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 했는데, 마치 누군가의 삼촌처럼

보이는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소한 한 젊은이가 졸업장도 받고 동료 수감자들도 격려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더 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후 그는 외부에서 온 친구와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사회를 맡은 한 수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멘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희망에 찬 날입니다. 성탄절보다 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좋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날보다도 훨씬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우침을 얻었고



우리도 교도소처럼
 참회할 수 있는 곳, 즉
 감독이나 주님, 또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교도소 철문은 아내와 제 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 돌아왔으나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저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감금과 자유, (그것이 깨우침 및 사랑과 맺는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엘마서 42:25)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저는 또한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경귀를 심었는데 어떻게 딸기를 수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오를 심는다면 풍성한 사랑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들을 떠올리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것은 맞지만 언제나 더 많은 양을 거둬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영경귀를 심었지만, 몇 년 후에는 사방으로 마구 뻗으며 자라난 수많은 영경귀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오를 조금만 심어도 자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많은 증오를 거둬들입니다. 증오는 들끓어 끓게 되며 적개심이 일어 결국에는 적대적이고 악의로 차게 됩니다.

그러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그다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아무리 두렵더라도,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후기 성도 교리의 기본 원리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공의입니다. 만약 공의가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규율을 적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의롭게 살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빨리 회개할 신앙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¹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기를 그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정진해 나갈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커다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야 하시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엘마서 42장에서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셔야 하며 그 자비는 회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에게는 색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자비가 회개를 요구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자비의 은사를 받기 위해 교도소에 가야만 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교도소에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영정귀를 심었는데 어떻게 딸기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오를 심는다면 풍성한 사랑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경전 또는 속죄를 알게 되는 것이라면 그들의 수감생활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도소처럼 참회할 수 있는 곳, 즉 감독이나 주님, 또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만의 작은 교도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쳐서 자비의 은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원상태로 돌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만, 공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애써 여기며 그 상태로 가기보다는 차리리 새로 시작하는 편이 훨씬 쉽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 유명한 영국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때만 구조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잘못 계산한] 합계는 계산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런 후] 그 지점부터 다시 계산함으로써 올바른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악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선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꼬인 것은 풀어야 합니다.”²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앨마서 42:23), 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떠오른 놀라운 생각은 문자 그대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경륜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분은 애초에 이 경륜의 시대에 밝히신 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 나의 계명[을] 따[르라.]”(교리와 성약 6:9) 저에게 매우 명확하고 유익하며 감동을 주는 개념으로 와 닿은 성구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회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필멸의 존재들과 같다면, 자신을 회감은 사슬을 풀어야 할 영역들이 있을



것이며, 벗어 버려야 할 차꼬와 족쇄가 있을 것이고, 회개해야 할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무지의 속박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박은 바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초반에 상투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모르는 게 약이다.”와 “아는 게 병이다.”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무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해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초한 속박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이생이나 다음 생에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의 원리는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교리와 성약 131:6 참조) 이생에서 배우는 것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고(교리와 성약 130:18 참조),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게 되며(교리와 성약 130:19 참조),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받을 수 있고³, 빛과

진리는 악한 자를 버리며(교리와 성약 93:37 참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리와 성약 93:36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 교회 전체가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43~45절; 강조체 추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점은 84편에 나와 있듯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역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강조체 추가)

다시 되돌아가서 원상태로 돌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지만, 공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애써 여기며 그 상태로 가기보다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편이 훨씬 쉽고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중요성

우리 존재, 즉 과거에 전세에 있었을 때 우리의 존재나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존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제를 골라야 한다면, 그 주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회의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향해 어떻게 진보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데 할애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택의지와 선택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의 전제가 되는 자유는]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게 될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해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안전 장치와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전 장치에는 충만한 복음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을 때 참으로 우리는 속박과 감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애 어느 시점에 투옥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 말씀을 매우 극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천사들을 오게 해서 간수들을 놀라게 하며 감옥 문을 활짝 열게 한 베드로나 바울처럼(사도행전 12:5~11; 또한 16:25~26 참조), 또는 감옥 벽이 무너지게 한 엘마와 앰올레크처럼(엘마서 14:23~29 참조), 어둡고 암울하고 황량한 감옥에서 우리 경륜의 시대에 가장 숭고한 경전을 기록한 조셉 스미스처럼(교리와 성약 121~123편 참조)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인 선지자가 투옥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적어도 정치적, 신체적 속박을 받거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 있으며 우리 삶에서 없애

버려야 할 다른 형태의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전에 나오는 대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우리]를 받아들여”(교리와 성약 124:18)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독수리 날개 위에 타는 경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곳은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이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며, 그 주위로 살아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란 기초가 놓여 있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구주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며, 그분께 충실하다면 거리낌 없이 가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몸에서 결박과 구금,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목숨을 버리신 흔적을 보게 될 것임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만연한 곳에는 더욱 풍성한 자비가 있으며 “그 자비는 회개를 요구한다.”고 가르치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

1974년 6월 2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인 “Borne Upon Eagles’ Wings”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구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09쪽과 크레이그 에이 카튼 장로의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5쪽을 참조한다.

주

1. *Lectures on Faith* (1985), 50-54 참조.
2. C. S. Lewis, *The Great Divorce* (1946), viii.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66쪽 참조.

조셉 스미스는 어둡고
암울하고 황량한
감옥에서 우리 경륜의
시대에 가장 숭고한
경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비

구주의 지상 성역은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범이 된다.

랜디 엘 데이벨

선 지자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가 몰몬경 번역본 116쪽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3:6~8, 12~13 참조) 조셉은 한동안 번역할 특권을 잃었으며 자신의 불순종으로 비탄에 잠겼다.¹ 그가 겸손해져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심어 주셨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3:10)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삶과 [자비에 관한] 가르침에서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 저속한 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려 한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²

경전에서 우리는 자비로움이 구주의 신성한 성품 중 하나임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7),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누가복음 6:36). 자비³는 연민으로 정의되며 동정, 친절, 용서, 사랑의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자비를 베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자비를 보여 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혼란, 곤혹스러움, 불행을 보면 언제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바라보셨다. ……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분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해졌다.”⁴

신약전서에 기록된 다음 원리들은 구주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심으로써 자비를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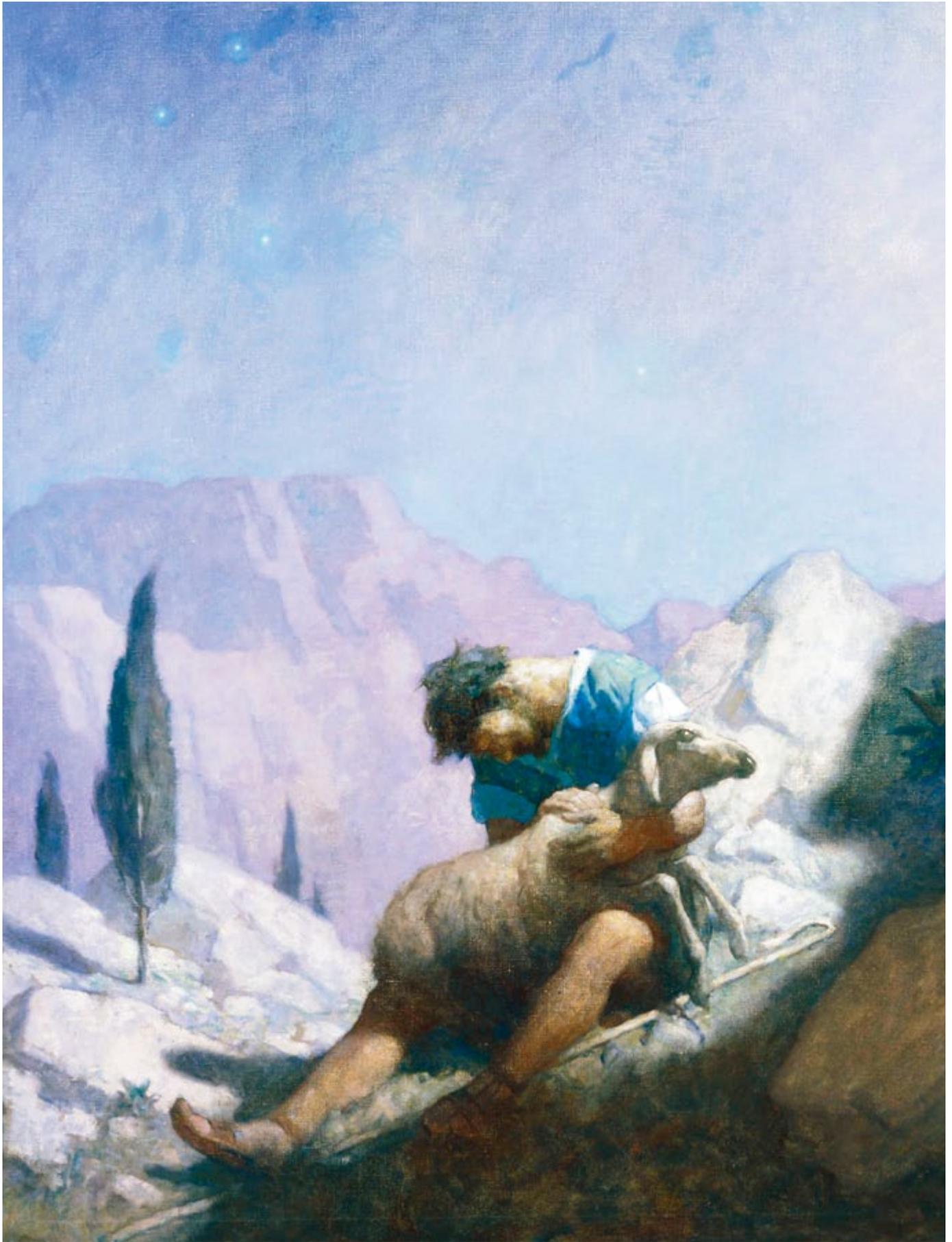
배반당하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들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셨을 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마태복음 26:21~22) 하고 여쭙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한복음 13:27)고 대답하셨다. 그 후 겻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예수님과 유다는 다시 마주쳤다.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마태복음 26:49)라며 구주께 입맞춤을 했고 예수님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누가복음 22:48)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의 대답이 유다를 그가 한 행동의 결과에서 구제해 주신 것은 아니었으나 그를 비난하지 않으신 채 대신 옳고 그름에 관한 유다의 분별력에 호소하셨다.

로마 병사들의 손에 투옥되고, 매를 맞고, 채찍질당하고, 예루살렘 성내를 강제로 걸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거기서 못박히는 시간을 견디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이들을 자비롭게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간청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예수님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를 보이셨다.

성역 초반에 예수님은 여행 길에,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잠시 쉬며 원기를 되찾고자 발걸음을 멈추셨다. 한 여인이 물을 길어 가고자 우물가로 다가오자, 구주께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분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해졌다.”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거신 것에 놀랐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녀를 업신여겼던 그 전통을 무시하셨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의 생수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렇게 간증하셨다.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요한복음 4:3~39 참조).

베뢰아에서 베폰 성역 막바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여리고 성을 지나게 되셨다. 키가 작고 부유한 삭개오는 구주가 지나가실 때 그분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은 그 결정에 대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며 불평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선량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누가복음 19:1~10 참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많이 주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셨다.

성역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가셨다. 그곳은 그분이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던 회당이였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부분을 읽어 주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누가복음 4:16~30 참조)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분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또다시 그분에게 화를 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도록 두 차례나 노력하셨다.(마태복음 13:54~57 참조)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주의 가장 큰 적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위협이 되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일도록 여러 번 촉구하셨다. 경전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 적어도 열 번의 중요한 설교를 하시며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회개하도록 권하셨다.

예수님은 반감을 피함으로써 자비를 베푸셨다.

예루살렘은 구주께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곳이다. 그분은 그 도시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 분개하고 화를 내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종종 그들의 사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가슴 아파하셨다.

십자가에 못박히기 며칠 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이 환호를 보내고, 옷을 벗어 그분 앞에 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누가복음 19:28~38 참조)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충절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37; 또한 누가복음 19:41~44 참조)

불과 며칠 후, 군중은 예수님을 등졌고 그분을 죽이라고 아우성쳤다. 구주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려 끌려가셨을 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누가복음 23:27~28)고 말씀하셨다.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하시고 예루살렘 백성의 손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자비를 베푸셨다.

어느 여행 길에서 예수님은 나인 성을 향하시다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 "[죽은]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누가복음 7:12)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그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잇따라 일어난 기적*을 이렇게 묘사한다. "주님은 이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게 되어 슬픔에 잠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울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관에 손을 대시니 그는 시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그 죽은 자는 만민의 주 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예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내셨다."⁵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면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다.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다. 그분은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딸 더듬는 사람과 나병환자 열 명을 고쳐 주셨다. 그들은 모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중요하지 않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많은 자비를 인식하고 기억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의 완고함과 비통함, 분노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을 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이미 슬픔과 고통이 충분히 있습니다. …… 우리는 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⁶

부활하신 주님은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떠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

것을 보시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제3니파이 17:5~7; 강조체 추가)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자비라는 신성한 은사로 축복하실 것이다.(모로나이서 10:32 참조) ■

글쓴이는 미국 뉴욕에 산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6쪽을 참조한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9~71쪽 참조.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궁핍히 여기는 자가 궁핍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6쪽.
3.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eleémón*는 ‘동정심이 있는’이란 뜻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oiktirmón*도 같은 뜻을 담은 말이다.
4. Charles Edward Jefferson, *The Character of Jesus* (1908), 154.
5.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3판 (1977), 256쪽.
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궁핍히 여기는 자가 궁핍히 여김을 받습니다”, 76~77쪽.

교리는 어떻게 확립되는가?

라린 포터 건트
교회 잡지

오늘날 교리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받는 신성한 계시를 통해 주어진다.

후 기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계시와 교리의 관계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교리를 확립하거나 교리적 차이를 바로잡는 일은 주님께 사도 권세를 받은 분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¹

교리가 계시를 통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주어지듯이, 우리 역시 각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가 참됨을 직접 확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계시는 기도, 경전 공부, 성신의 증거를 통해 온다.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온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고 복음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201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전한 말씀을 토대로 만든 다음 도표는 교리가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보여 준다.² ■

-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6쪽.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86~90쪽.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교리에 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교회 전체를 위한 교리를 밝히는 계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만 주어진다.(아모스 3:7; 교리와 성약 1:38; 28:2 참조)

계시는 다음을 통해 올 수 있다.

주님의 방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 주셨다.(모세서 1:1~9;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참조)

주님의 음성

주님은 니파이에게 배를 지어 가족을 데리고 미대륙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다.(니파이전서 17:7~8 참조)

성신의 음성

이런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에 전달하는 것이다. 신약전서의 사도들은 성신을 통해 새로운 개종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사도행전 15:5~29 참조)

하늘의 사자

하늘의 사자인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각자 자신의 경륜의 시대에 맡았던 열쇠를 선지자 조셉에게 주었다.(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계시는 다음을 통해 올 수 있다.

교회 회장이 받음

선지자인 교회 회장에게 계시가 올 수 있으며, 이것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의로 지지될 때 교리가 된다.(사도행전 10장; 공식 선언 2 참조)

평의회에서 의결하는 선지자들

미대륙의 제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답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라.]”(제3니파이 27:7)

의로운 역할 모델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의로운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히카리 로프터스

교회 잡지

고등학교 시절, 토드 실베스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유명한 파티광이 되는 것이었다.

열네 살 때, 토드는 술과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다. 토드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그의 말을 빌자면 부모님은 토드의 행동에 대해 “이러저러한” 조언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 수년간 토드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한때 앞길이 창창했던 농구 경력을 망쳐 버렸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안타깝게도 토드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소년의 삶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교회 청년들의 삶에서까지 말이다. 하지만 교회 청년들에게는 토드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의로운 역할 모델이다. 성인 교회 지도자들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에 22세가 되어서야 교회에 들어온 토드는 현재 자신의 와드에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실베스터 형제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겪을 때 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한 마디

기도로 마음이 변화되었다. 1개월 반이 지난 후 교회 회원인 오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서 “토드! 난 너에게 우리랑 함께하자는 말을 해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 …… 넌 많은 사람을 돕게 될 거야.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말이야.”라고 말했다.

몇 년 후 실베스터 형제가 침례 받고 성전 결혼을 한 후 그는 청남 프로그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시작으로 그는 14년간 청남을 위해 봉사했다.

자신의 과거를 청남들을 돕는 동기 부여 책으로 삼으면서, 실베스터 형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청남들이 겪는 시련과 결부할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매년 이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쉽게 제게 와서 ‘외설물, 음주, 자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라고 털어놓습니다.” 실베스터 형제는 감독님과 접견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도움을 준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사랑으로 조언을 해 주면, 지도자는 청소년과 돈독한 사이가

되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이자 청소년 발달 박사학위를 받은 맷 듀어든은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기는 각자 자아, 가치, 신념, 역할 등을 발전시키는 때입니다. 탐험의 과정이죠. 그 과정의 일부는 동료, 부모, 그 밖의 다른 어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며 특히나 존경받고 훌륭한 어른으로부터 그럴 수 있을 때는 정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듀어든 형제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가장 효과적인 멘토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청소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든, 자신을 정말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는 사람입니다.”

실베스터 형제는 “대부분의 소년은 아빠와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가고 싶어합니다.”라고 말한다. “아빠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차선책은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며 자신이 문제를 저지른다 해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않을 어른이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소년들과 공감할 수 있게 그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관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험을 나눌 때 진정한 힘이 솟습니다.

모든 회원은 자신의 부름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맷 듀어든,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그들의 아빠를 대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제게 말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고 싶습니다.”

교회의 성인 지도자들이 청소년에게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선지자와 사도들은 청소년들의 주된 역할 모델은 부모여야 한다고 말씀했다. 예를 들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게 되는 본보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이며, 여러 면에서 아들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범은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아버지와 아들: 특별한 관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7쪽)

실베스터 형제가 청남들과 맺은 그 어떤 관계도 단숨에 이뤄진 것은 없다. 모두 수년간 봉사하면서 쌓아 온 것들이다. 그가 가르친 20명의 청남 가운데 17명이 선교 사업을 나갔다. 적어도 5명은 실베스터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 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실베스터 형제는 말한다. “그 소년들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주와 관계를 쌓아 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 견뎌 내고 이생에서 전진해 나가 성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청남들이 구주와 관계를 맺도록 도움으로써 실베스터 형제는 그들의 간증이 커져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며 의로운 가족을 양육하기를 희망했다. 실베스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가지 성공 사례

다음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꿔 준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있었다.

그분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미 국 미주리에서 보낸 청소년 시절,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의 블레인 바솔로뮤 형제님은 교회 활동에서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분의 우정이나 충고를 마음에 새긴 적이 없었다. 1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분은 내가 시련을 겪으면서 계속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셨고 당시 감독님으로서 내게 권고하시고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고자 하셨다. 결국 나는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됐다. 이사를 한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블레인 형제님과 그분이 내게 보여 주신 사랑이 떠올랐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우정을 이어 가셨고 나를 한 가족으로 여기셨다. 그분은 친구일 뿐 아니라 내게 제2의 아버지라도 같다. 여러 번 내가 술에 취했거나 마약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도 그분은 나를 돌봐 주셨다.

이제 나는 나이가 더 들었고, 블레인 형제님과 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 지원은 그분이 인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잠재력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다. 이제 나는 내 죄와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결코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성약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을 나를 위한 모범으로 보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익명, 미국 유타

조금씩 조금씩

나 는 한때 말썽쟁이 청년이어서 부모님과 지도자들은 도대체 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우리 와드에서 새로운 스카우트 지도자가 부름받았다. 한 번도 빈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분이 새로 이사 오신 분이라고 여겼다. 그 형제님은 매우 엄격하게 규율을 따지는 분이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을 만드셨다. 나는 우리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처음부터 그분은 내가 재미있어 할 만한 활동을 계획하셨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노력하셨다. 몇 년에 걸쳐 그분은 조금씩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으로, 그리고 내가 수십 년간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제이 엘던 로, 미국 아이다호

나는 한 번도 성찬식에 빠진 적이 없었다

청 소년 때 나는 그 또래 아이들이 으레 겪는 시련을 겪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교회의 활동 회원이 아니셔서 어머니를 통해서만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인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나에게서는 따를 수 있는 신권 지도자가 필요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을 내 인생길에 마련해 주셨다. 그분의 성함은 파울로 세사 도스 산투스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가기 싫었던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고 바랐다. 나는 어머니께 조금 있다 준비해서 갈 테니 먼저 교회로 가시라고 했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경기를 시청했다. 잠시 후 대문에서 나를 부르시는 파울로 감독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은 인내심을 갖고 내게 이야기하셨고 나는 마지못해 성찬식에 갔다.

이 경험은 평생 내게 영향을 주었으며 나는 그 이후 한 번도 성찬식에 빠진 적이 없다.

비니셔스 일라이어스 바보사 자르덤, 브라질 상파울루



여전히 분명한 메시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에 더 잘
맞는다고 말한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결 혼 생활이 위협받고 전통적인 가족이 공격받는 이 시대에 특히 이 가족에 관한 선언문은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1995년에 발표되었을 때보다 현재 더 잘 적용된다고 말한다.¹

현대에 들어올리는 자유의 가치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가족에 관한 이 선언문을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한다.²

이 세상은 물론경에 나오는 타락한 니파이인 사회와 유사하다. 벨라드 장로는 후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이 선언문]을 고수하고 그것을 모로나이 장군의 ‘자유’의 가치와 같은 깃발로 삼아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³

행복에 필수적인 것

세상은 행복에 이르는 많은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대의 선지자들은 행복에 이를 가장 확실한 길은 해의 왕국의 결혼에 있다고 단호히 이야기한다.⁴

벨라드 장로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이 지식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우리의 가족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로 한 아버지 아래 영의 가족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⁵

자신의 힘을 능가해서

벨라드 장로는 전 세계 가족들이 가족 선언문을 구해서 그 가르침대로 따르라고 권고한다.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성스러운 책임을 여러분이 매일 이행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의 힘을 능가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의 음성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신 것은 실패하도록



가 족에 관한 이 선언문은 ids.org/topics/family에서 찾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울인 노력을 누구도 실패라고 단정짓지 못할 것입니다.”⁶

영생에 대한 희망

가족 선언문은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친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될 때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만큼이나 영원할 수 있게 됩니다.”⁷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가족은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우리 소망의 기초도 됩니다.”⁸

때가 되기 전의 경고

아이어링 회장은 가족 선언문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 “단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⁹

아이어링 회장은 가족 선언문은 예언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근 몇 년간 가족을 파괴해 온 것들에 대해 경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 선언문 끝에 나오는 예언적인 경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을 인용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¹⁰

전 세계적인 선언문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1995년 9월 23일에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 선언문의 목적은 세상의 표준을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¹¹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 이후로 가족 선언문은 여러 언어로 출판되었고, 연차 대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전 세계의 집회소와 가정에 걸리게 되었다. 가족 선언문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필요한 인도를 주시고자 마련하신 예언적인 선언문이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쪽 참조.
2.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41쪽.
3.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42쪽. 가족들이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번 호 60쪽에 있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에 실려 있다.
4. 러셀 엠 벨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94쪽 참조.
5.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42쪽.
6. 엠 러셀 벨라드,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 *리아호나*, 2006년 3월호, 17쪽.
7. 러셀 엠 벨슨, “해의 왕국의 결혼”, 92, 93쪽.
8. 헨리 비 아이어링, “가족”,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3쪽.
9. 헨리 비 아이어링, “가족”, 18쪽.
1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1.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0쪽.

연단 뒤에서 듣게 된 설교

어느 성찬식에서 우리 가족은 집사들보다 몇 줄 뒤쪽에 앉아 있었다. 개회 찬송이 시작되기 전에 내 생각은 온통 긴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않고 구겨진 셔츠를 안으로 집어넣지도 않은 한 집사에게 쏠려 있었다. ‘누군가가 저 집사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어쨌든 성찬을 전달하는 집사들은 품행과 옷차림에서 구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성찬식이 진행되면서 나는 그 집사에 대한 생각을 잊어 버렸다. 집사들이 성찬을 돌린 후 말씀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연사는 그 집사의 어머니였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개종 이야기와 성장하면서 겪은 시련들, 흠어머니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참으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 주신 자매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자매님은 단상에 앉아서 워드 합창단이 합창하려고 모일 때까지 계속 우셨다.

그때 자매님의 아들이 비뚤어진 넥타이에 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빠져나온 차림으로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껴안고 옆에 앉아 다독이며 위로했다. 내 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눈물이 났다. 감동을 받은 나머지 목이 메었다. 하지만 그때 별안간 깨달음이 왔고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잘 다린 더블 버튼 정장에 번듯하게 넥타이를 매고 광이 나는 검은색 구두를 신은 나는 성찬을 준비하는 것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청남과 어머니는 합창단의 노래가 시작되자 단상에서 내려와 함께 앉았다. 나는 연단에 앉아 있었지만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집사가 가르쳐 준 설교로 그리스도의 자애를 담은 메시지가 내 가슴 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 청남은 친절을 보이고 타인을 보살폈다.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에는 어떠한 어색함도 없었으며, 오직 순수한 사랑만 가득했다. 그날 나머지 연사들의 말씀도 훌륭했지만 나는 연단 뒤에서 배운 그 교훈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

제프 폴머, 미국 아이다호

그때 자매님의 아들이 비뚤어진 넥타이에 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빠져나온 차림으로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껴안고 옆에 앉아 다독이며 위로했다.



두 명의 새로운 집사

몇년 전에 나는 집사 정원희 고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정원희에는 활동적인 집사 세 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정원희 회장단으로 부름받았다.

이 집사 정원희 회장단은 모임을 하면서 교회 모임과 활동을 하려면 정원희에 적어도 두 명의 집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6주 후 일요일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노력이 성공하도록 기도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 함께 금식한다.
- 출석부에 있는 각 집사를 방문한다.
-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집사들이 잘 짜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 회장단은 이 목표가 주님의 뜻을 절실히 느꼈기에 신앙과 확신으로 전진했다.

그다음 몇 주간, 이 세 청년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실천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저활동 집사들을 방문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했고, 참석자 수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여러 활동도 준비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활동에 참석하는 저활동 집사는 아무도 없었다. 목표한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정원희 회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정한 목표 날짜가 되었지만, 회장단이 연락했던 청년 중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성찬식에서 감독님은 열두 살 소년인 두 구도자가 저녁에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셨다.

이 두 새로운 회원이 것처럼 훌륭한 회장단이 있는 정원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회장단이

그다음 몇 주간, 이 세 청년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실천했다.

자신들의 노력이 분명히 결실을 맺고,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은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발표에 흥분한 정원희 회장단 중 한 명은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

앤소니 포투, 뉴질랜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언젠가 친구가 자신의 아들 존과 그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러도 괜찮은지 물은 적이 있다. 존은 저활동 회원이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비회원이었다. 우리는 그 여자친구에게 우리 아들의 방을 내주었고 존에게는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교사, 부모, 혹은 그냥 친구로 대해야 할지 알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응답은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남편과 우리 아들과 나는 함께 앉아 경전을 공부했다. 손님들을

맞이한 첫 날 저녁,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공부하자고 권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 경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존은 조심스럽게 우리 방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리가 물어보기 어려워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대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 몰몬경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메리는 예전에 한번도 경전을 읽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메리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뭔가에 참여하라고 할까 봐 걱정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존은 조심스럽게 우리 방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리가 물어보기 어려워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대요.”

남편은 메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몰몬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자정까지 우리와 이야기했다.

다음 날 존과 메리는 우리와 함께 선교사 토론에 참여했다. 나는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영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간단한 토론 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메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었다.

며칠 전에 나는 세 번째 아이를 유산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메리의 질문으로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는 때때로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 개인적인 비극을 겪을 때만큼 깊고도 영원한 가르침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고 간증했다. 나는 메리에게 불이 철을 연단하듯이 슬픔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말했다. 시련을 이겨내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 충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커질 것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토론이었다. 그 후 우리는 잠자코 앉아서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느꼈다. 메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날 메리의 눈에서 본 그 이해력이 그녀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

아나 니키티체바, 러시아



주님은 내가 망친 노래를 축복하셨다

성 찬식 때 나는 청소년인 아들 데릭과 함께 “잠잠하라 내 영아”¹를 부른 후 부끄러움으로 그만 귀가 빨개지고 말았다. 성찬식 전에 발성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고음을 내려고 하자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얼른 내 자리로 돌아갔고 아내가 웃으면서 잘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성찬식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했다.

폐회 기도 후 나는 공과책을 가지러 차가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자매님 한 분이 문 옆에 서서 흐느끼고 계셨다. 그리고 한 친구가 자매님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흐느끼던 그 자매님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그 찬송가를 선택해 줘서, 또 우리 노래가 큰 감동을 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 자매님은 며칠 전에 사산을 했고, 그 이후로 분노와 절망과 싸워 왔다고 설명하셨다. 데릭과 내가 찬송가를 불렀을 때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던 자신의 영혼을 영이 살며시 감싸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다. 그 노래로 자매님은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필요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우물거리듯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문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 자매님의 말에 기쁨과 겸손함을 느꼈다. 차에 거의 왔을 때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총장이신 김 비 클락 형제님이 영적 모임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그분의

일을 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이 좀 어색하거나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구주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분의 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하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하지만 진솔한 우리의 노력을 완벽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²

집회소로 돌아가면서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주님은 잘 부르지 못한 노래를 축복하셔서 그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그 슬픔에

잠긴 젊은 자매님의 마음에 전달하여 그녀의 영혼을 위로해 주셨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 내가 심오한 복음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 주셨다. ■

랜디 론즈데일, 캐나다 앨버타

주

1. 찬송가, 92장.

2. Kim B. Clark, “Love by Faith,” 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devotional, July 29, 2010, www.byui.edu/Presentations/Transcripts/EducationWeek/2010_07_29_Clark.htm.

성 찬식 전에 발성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고음을 내려고 하자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의 은혜가 족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브래드 월콧스

한 젊은 자매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를 못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모두 갚아 주셨지요. 그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다 갚으신 것이 아니라 전부 갚아 주셨습니다. 완전히 청산하셨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할 일이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자매님이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일이 빛을 갚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영광의 등급을 받을 것인가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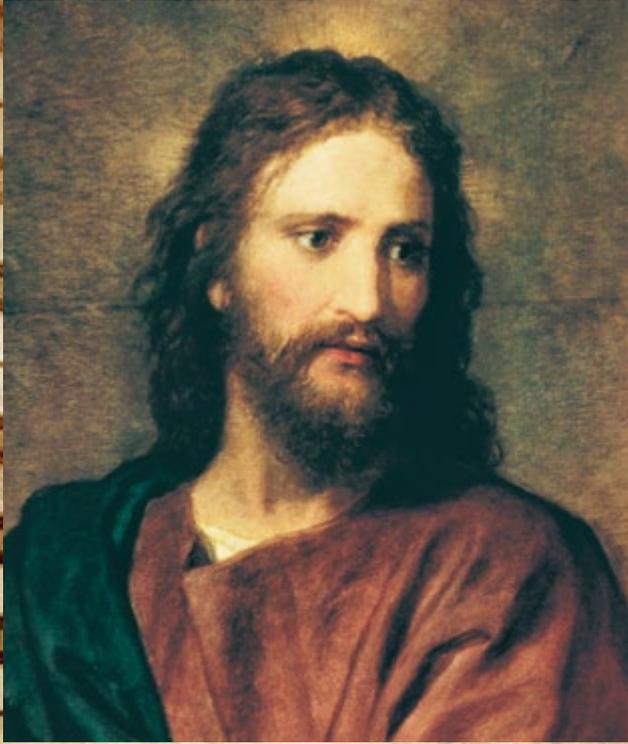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회개하며,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의의 대가를 조금도 치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계명에 따라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분께서 하신 일에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공의는 즉각적인 완전을 요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전해질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며(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또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공의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으며,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정하신 요건을 제시하십니다.(제3니파이 28:35 참조)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음악 교습을 받게 해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엄마는

피아노 선생님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엄마는 수업료를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연습하면 피아노 선생님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연습이 피아노 선생님한테 수업료를 지불한 엄마에게 다시 갚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습은 엄마가 준 커다란 선물에 대해 아이가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도록 엄마가 준 놀라운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엄마의 기쁨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로 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엄마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아이가 생각한다면(“엄마, 왜 연습해야 해요? 나처럼 연습해야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냥 프로 야구 선수가 될래요!”) 그 아이는 아직 엄마가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 때 인생이 얼마나 더



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속적이며 그분의 힘을 통해 우리의 약점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마태복음 4:19),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15)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에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이 고통에는 형벌이나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바로 변화입니다.”(*The Lord's Way* [1991], 223; 강조체 추가) 이제 이것을 그 아이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 아이는 피아노를 연습해야 하지만, 이 연습에는 형벌이나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속죄의 기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살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0:10 참조) 속죄의 기적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위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로마서 8장 참조) 경전에는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엘마서 40:26 참조)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영광을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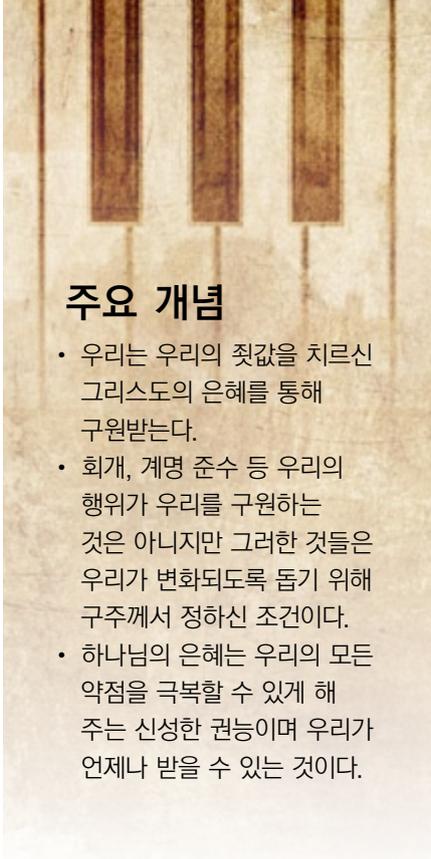
속죄의 기적은 우리가 단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향에서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신앙과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변화하려는 소망 또한 없을 것입니다. 신앙과 회개가 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신의 은사도 주지 않으신다면 변화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받을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영원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끝까지 견디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시간이 지나도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변화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변화에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실행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지만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 피아노에 소질이 없어요. 자꾸 건반을 잘못 눌러요. 제대로 치려면 시간이 한없이 걸릴 거예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잘못 눌렀다고 해서 그가 계속 연습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완벽하게 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계속 연습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아노를 배우는 예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토록 쉬운 반면 왜 하늘에 관해 배우는 상황에서는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끊임없이 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쳐 버리기



주요 개념

- 우리는 우리의 짓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
- 회개, 계명 준수 등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변화되도록 돕기 위해 구주께서 정하신 조건이다.
-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신성한 권능이며 우리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노력해 왔지만 자신이 여전히 못 미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완전과 포기,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선택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배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변화가 하나의 과정이며, 회개가 우리 삶의 패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속적이며 그분의 힘을 통해 우리의 약점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고린도후서 12:9 참조) 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교리와 성약 67:13)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료가 고갈될 때 힘을

발휘하는 추진 엔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은혜는 터널 끝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터널 속을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빛입니다. 은혜는 훗날 언젠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합니다.(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17:8 참조) 우리의 빛을 갚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만큼,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를 도와줄 만큼 충분합니다. 물문경에서는 우리가 “기록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부 기독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그토록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와 그분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할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빌립보서 4:13 참조) 은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이 존재함을 말합니다.(누가복음 1:37 참조)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탈출구나 변명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완전한 힘만 찾으십시오. 비난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가능하게 하는 힘과 신성한 도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11년 7월 12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을 보려면 speeches.byu.edu에 접속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행복으로 가는 계단

계명은 구속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9월에는 신권 정원회와 청년, 주일학교 시간에 계명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토래가 종종 지키기 힘들어하는 계명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므로써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방법과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영을 따르는 방법들을 토론해 보십시오. 가정의 밤에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역할극을 하거나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간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촉진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계명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 계명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는 계명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더 많은 계명을 따르고 싶어. 난 발전하고 싶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계명을 통해 어떻게 그분처럼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돼. 계명은 내 앞에서 길을 열어 주고, 악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때때로 우리의 삶 자체를 보호해 주기도 해.”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1월에 아르헨티나 살타의 청소년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

때때로 일부 사람들은 계명이 구속 혹은 제한이며,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삶의 기회나 행복,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계명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줍니다.

계명은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각 단은 하나의 계명을 나타내며, 각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계명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계명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망에 따라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소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진보를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쪽과 엘 톰 페리 장로의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6쪽을 참조한다.



크고 넓은 건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데니스 시 건트

애비는 졸업 무도회에 갈 생각으로 들떴으나 새로 산 드레스가 친구들이 입을 옷과 조금 더 비슷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애비는 친구들이 민소매 드레스를 입어 더 매력적이고 세련되어 보일 것에 반해, 자신의 옷은 수수해서 자기 혼자만 두드러져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에 네이트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한 친구가 맥주를 가져와 돌렸다. 네이트가 처음에 “난 못 마셔.” 하며 거절하자 친구들이 비웃으며 놀려 댔다. 네이트는 친구들이 자신을 따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비웃음에서 벗어나려고 맥주를 몇 모금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딘지 익숙하지 않은가? 애비와 네이트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선택이 가로 놓인 갈림길에 도달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우리는 때로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기를 두려워한다.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애비와 네이트는 리하이의 생명 나무 시현에 묘사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그 시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그들이 유혹으로 눈이 멀었거나(니파이전서 8:23;2:17 참조)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니파이전서 8:26~28 참조) 리하이의 시현에 나오는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 이외에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옳은 것을 옹호할 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힘을 찾아보자.

이 길을 따라 걸으라

세상적인 유혹의 문제점은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은가?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누가 죄를 재미없다고 했습니까? …… 죄는 매혹적이며 멋집니다. …… 죄는 쉽고, 그 안에는 재미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¹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다른 길에 있는 많은 것이 종종 멋져 보일 때가 있다. 어떤 길은 신 나는 쪽으로 급속히 들어지는 반면에, 어떤 길은 너무도 교묘히 휘어져 나가 한동안은 복음의 길과 평행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양탄자와 박수갈채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길은 금과 보석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크고 넓은 건물 그 자체의 매력 또한 매우 흡사하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강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곳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차려 입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들은 종종 복음의 길에 머물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친구 애비와 마찬가지로 크고 넓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을수록 우리는 더욱 시기하거나 좌절하고 심지어 화가 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생명 나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토록 애쓰는데, 그들은 좋은 것을 그렇게 많이 누리는 게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아주 좋은 방법은 복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지겹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발상으로 믿게 만드는 것임을 사탄은 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할 때, 용기를
내어 그에 맞서며 복음 진리에 따라 살길 바란다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는 것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거나 자신이 표준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youth.lds.org에서 Featured Videos (특집 비디오: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 하단의 "Dare to Stand Alone"와 "I Choose to Be Pure"를 찾아본다.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길이 복음의 길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그 열매의 맛은 어땠어?”

크고 넓은 건물에서 즐겨 하는 일은 충실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일부 유명인사와 ……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그리고 때때로 우리 교회에 대해 조롱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런 비판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의심하거나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²

살아가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실생활에서나 온라인 상에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는 누군가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비웃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조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 누구도 조롱받거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믿음이 경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이트가 그랬듯이 때로 우리도 “난 몰몬이라서 못해.”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더 큰 비웃음을 듣기도 한다.

“난 못해 ……”

조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못한다는 말에 주시한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예를 들면, “왜 저걸 못 마시는데?”, “일요일에 쇼핑을 왜 못 하는데?”, 혹은 “혼전 성관계가 왜 안 되는데?”처럼 말이다.

못한다는 말에 쏟아붓는 그들의 조롱에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느낄 수도 있다. 약하고 용기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재미도 즐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 두는 바람에 자신이 힘없는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전술은 아주, 아주 오래된 것이다. 사실 사탄은 태초부터 이 전술을 써 왔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모세서 3:16) “각종 나무”라는 말이 구속하는 제약처럼 들리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일어날 구체적인 결과들을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지는 않으셨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차지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모세서 3:17) 내게 그 말은 자유를 뜻한다!

사탄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모세서 4:7) 사실 사탄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왜 안 되는데?” 크고 넓은 건물의 창가에 서서 비웃는 자들과 똑같은 어조로 말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필연적인 결과를 맞게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신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더해 교묘히 바꾸었다. 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구원의 계획에 속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가 성장하여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주를 마련해 주셨다.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난 몰몬이라서 못해.”라고 말할 때, 과연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몰몬이 아니었다면 정말 했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는 ‘내가 교회 회원만 아니어도 다 해 봤을 텐데.’라고

선택하는 힘

“[사람의 자녀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니파이후서 2:26)



항상 농담을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다. 문제는 그 친구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다와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좋다. “난 물론이니까 하지 않을 거야.”처럼 말이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말에서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남에게 보여 주게 된다.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제약을 받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옳은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니파이후서 2:14, 26 참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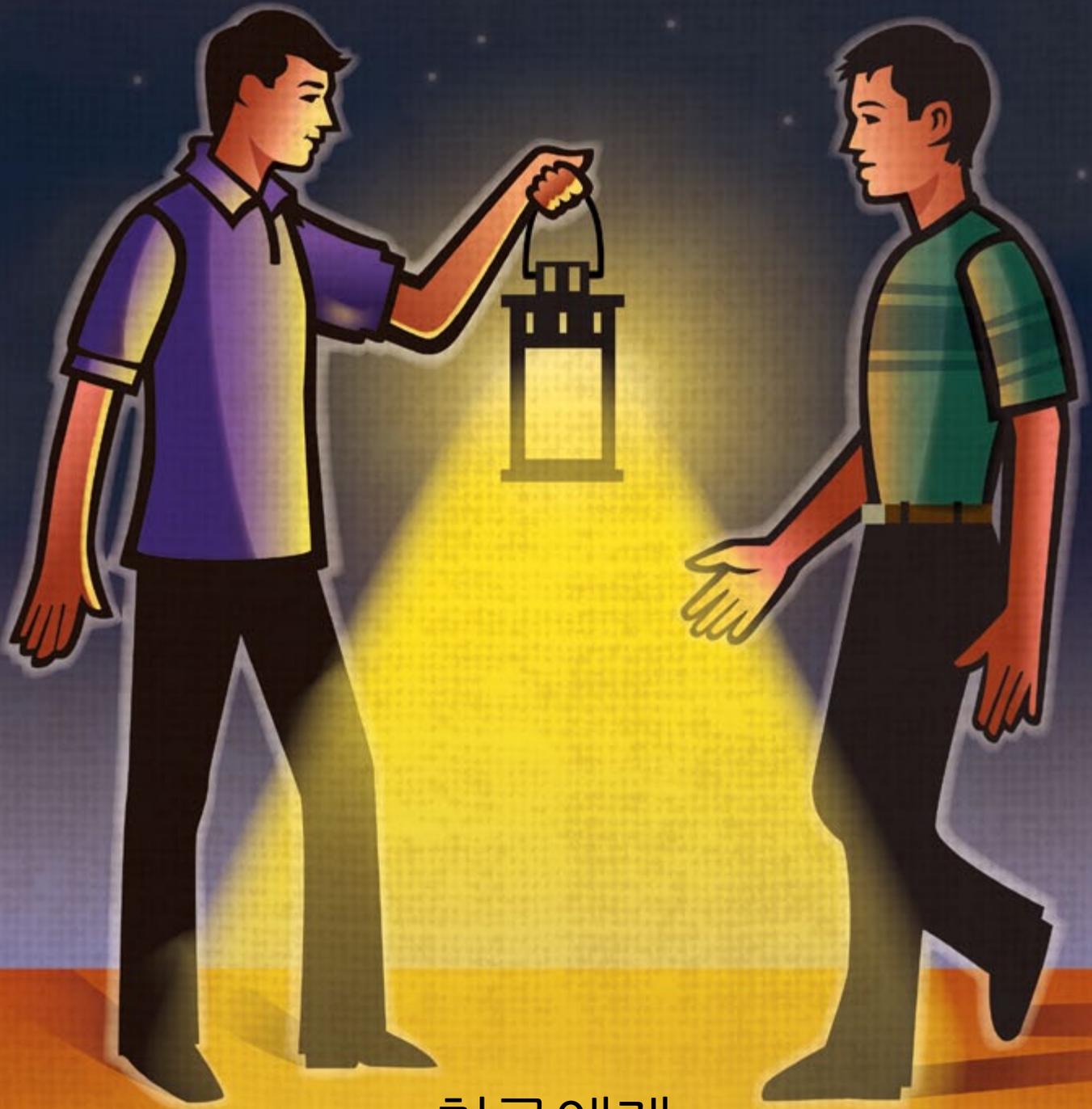
“난 할 수 없어.” 대신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용기를 우뚝 세우는 상징이 된다. 각양각색인 세상 길로 향하는 무리를 따를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을 표출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있으며, 주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다.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름 없는 무리, 얼굴 없는 폭도로 불린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공허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의 선택의지를 충실하게 행사한다면, 리하이와 그의 용감하고도 충실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용감하게 “우리는 ……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8:33)라고 말할 수 있다.

날로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그에 맞서 복음의 길을 걸어 가는 이들은 정말로 독특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유하신다.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설 때에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³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Spencer W. Kimball,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29.
2.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0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67쪽.



친구에게
빛이
되십시오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열두 살 때까지 늘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살았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고 서로의 생일 파티에도 갔습니다. 때로 친구들의 집에서 밥도 먹고,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하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제 친구들은 욕설을 하고 담배와 술에 손을 댔습니다. 순결의 법에 대해서도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정할 문제란다. 네 친구들이 좋은 애들이기는 하지만 너와는 다르지. 예전에는 그 차이를 몰랐겠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아주 커졌다.”

저는 아버지의 충고를 신뢰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교회 회원인 것을 알았기에 항상 그들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저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계속 친하게는 지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진다는 것은 큰 시련이었지만 삶 속에서 복음 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앵마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 ……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엡마서 36:3)

매주 상호 향상 모임을 비롯한 교회 활동 모임에 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춤과 운동을 즐기고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는 등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게는 새로 알게 된 비회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종종 저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파티들이 상호 향상 모임과 같은 날에 열렸기에 저는 “미안, 가고는 싶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어떤 약속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상호 향상 모임에 가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이 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호 향상 모임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며 제가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파티에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자 그 친구는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해 줘.”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따라왔고 선교사들과 토론했으며 결국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리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공과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다시 말해서 읽기 과제를 하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 할 때 세미나리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배움은 그렇게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제게 파티에 가지며 “우리 아버지 차를 빌릴 수 있을지 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차를 빌려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시더니 “좋아, 차를 빌려 주마. 대신 벤자민이 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제 가족이 교회 회원이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정의 밤을 하고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가족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통해 복음을 실천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요일 오후에 종종 교회 회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미래에 굳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방법은 바로 복음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매일 열심히 기도한다면, 경전을 읽고 자신을 깨끗이 유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러분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친구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며,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해답을 찾아서

제가 사는 곳에서는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사람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여깁니다. 문란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이란 오명을 쓰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가볍게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이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후기 성도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같은 사람과 빈번하게 데이트하는 것을 피[하여]” 어린 나이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권고 받습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책자, 2011], 4쪽) 하지만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첫 데이트를 하기도 전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한 번만 해도 그것은 진지한 관계로 만나자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며 문란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순결과 성적 순결에 대해 주님의 표준을 믿고 지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여러분의 인성과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도 없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교회 규범을 널리 알림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데이트 문화가 더 훌륭하게 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데이트 기준을 물어온다면, 그들에게 당장 결혼할 게 아니라면 왜 그토록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되물어 보십시오. 그룹 데이트에

초대해서 십대들의 연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도덕적인 위험과 감정적인

사건을 피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신 지침과 권고를 알려

주십시오. ■





청남들은 14세가 되면

가정 복음 교육을 시작하는데

왜 청녀들은 18세에 **방문 교육**을
시작합니까?

교회가 조직된 1830년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20:53) 이것은 아론 신권의 교사 이외에도 제사들과 뿔기세렉 신권 소유자들도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교리와 성약 20:45~52 참조) 가정 복음 교육은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특정한 지명을 받음으로써 이 의무를 성취하는 한 방법입니다. 방문 교육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준 임무 지명을 통해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서로 강화하고 가르칠 기회를 맞게 됩니다. 청녀(특히 반 회장단)들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강화하고 지지해야 하지만 특정 사람들을 매달 방문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

선교 사업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심각한 신체적 문제나 의학적인 제약 사항은 선교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며 동반자의 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선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은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 비만인 사람은 매일 고된 선교 사업을 소화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추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체중 감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건강과 관련한 한 가지 기준은 하루에 9킬로미터는 아무런 문제없이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 혹은 지부 회장이께서 관련된 대답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식 헌금이나
다른 **기부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해야 합니까?

수입이 있고 기꺼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금식 헌금 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돈을 벌었을 때 수입에 대한 십일조를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합당하게 금식일을 지키려면 ……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9쪽) 가족의 식비를 부모님이 내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가족이 금식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기부 금액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심 없이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할 능력이 된다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십일조나 그밖에 헌금 명세서에 있는 기타 교회 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로즈메리 위크
본부 초등학교 회장

음악의 영향력

음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알려 주는 생쥐 실험

누 군가에게 “초등학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노래의 가사는 쉽게 잊히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초등학교 노래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 구절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닮으 ……”

“하늘 아버지 정말인 ……”

“선생님이 들려주신 ……”

문장을 완성시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음악이 우리의 감각을 풍성하게 하고, 감성을 자극하며,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 헌납식을 청소년 문화 행사를 통해 영을 고양하는 음악과 춤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며]”,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할]”(시편 66:1~2)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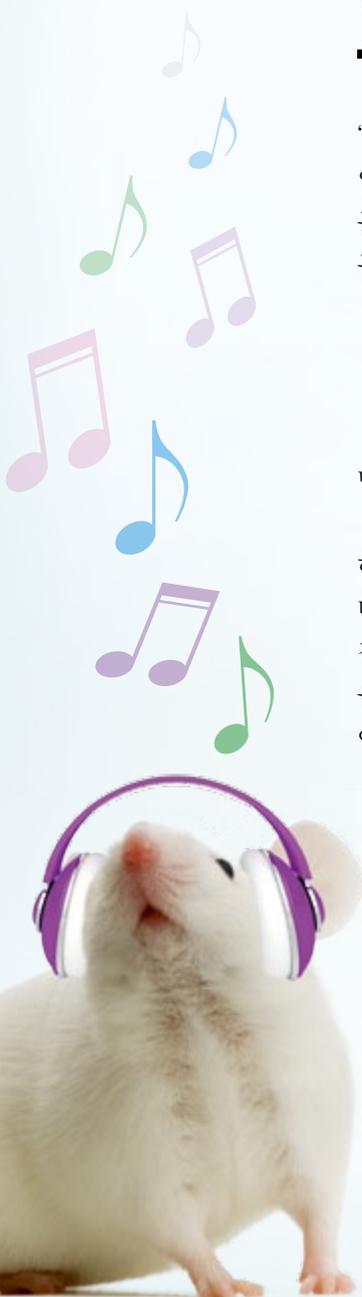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악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¹ 음악은 여러 면에서 삶을 풍요롭게도 할 수 있지만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교육하고, 교화하며, 영감을 주고, 단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은 리듬, 박자, 강도, 가사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무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음악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² 가사를 주의 깊게 듣느냐 안 듣느냐는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노래 가사는 쉽게 익히고 쉽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³ “어떤 음악을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⁴하도록 경고를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생쥐, 음악, 학습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일을 성취하거나 배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연구자가 이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음악과 리듬이 생쥐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8주 동안 첫 번째 그룹의 생쥐들에게는 (잘 조직된 질서 있는 음악인)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들려주었고 두 번째 그룹은 연속되는 드럼 비트로 불협화음을 이루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8주 후, 생쥐들에게 미로 속에서 먹이를 찾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있던 생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암시”였습니다. 또한 이 생쥐들은 실험을 시작했을 때보다 먹이를 찾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생쥐들은 “불협화음 소리에 노출되어 학습과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뇌세포에 구조적인 변화 또한 생겨났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진단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생쥐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협화음의 소음에 대처하려고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쥐들은 혼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⁵

현대의 음악에서 어떤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는 “혼란”의 요소라 할 수 있을까요? (생쥐 실험에서 그랬듯이) 그것들은 음악의 리듬과 박자 혹은 노래 가사나 메시지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쉽게 주위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인기 가수나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들을 보면, 현대는

질서보다는 동요를, 평온보다는 광란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⁶

시간과 영성의 문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악의 리듬과 가사만이 아닙니다. 그런 음악을 듣는다면 분명하게 생각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조용한 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소설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을 대변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인물은 선한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언제나 우리를 그들 머릿속에 뭔가를 심어 주는 존재로 여긴다는 게 우습군. 사실상 우리로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길인데 말이지.”⁷ 본질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영으로부터 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머릿속을 항상 나쁜 생각들로 가득 채울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느끼며 영적인 인도를 받는데 필요한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⁸

우리는 항상 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어떤 댄스 파티에 참석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야 합니다.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에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할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2쪽.
2. Thomas S. Monson, *A Prophet's Voice: Messages from Thomas S. Monson* (2012), 77.
3. Jack R. Christianson, quoted in “Author’s criterion for picking music: does it encourage a proper life style?” *Church News*, May 6, 1989, 5.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2쪽.
5. Richard Lipkin, “Jarring Music Takes Toll on Mice,” *Insight*, vol. 4, no. 14, April 4, 1988, 58.
6. 보이드 케이 패커,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리야호나*, 2008년 4월호, 30쪽.
7. C. 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1982), 20.
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3쪽.





내 마음의 기도

듣는 음악의 수준을 높이자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마리아 콘수엘로 엔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하루라도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최근에 한 경험으로, 음악을 향한 내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으며,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내가 읽었던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났다. 한 번은 찬송가를 건성으로 대충 부르고 있었는데, 엄마는 찬송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며 올바르게 불러야 한다고 내게 일깨워 주셨다. 나는 이 구절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의로운 소망으로 부르는 모든 노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경전에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께 노래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할지 상상해 보라.

나는 또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 구절을 읽고난 후, 나는 내가 듣는 음악들을 살펴보고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삭제했다.

곧 내가 소장한 노래 이외의 음악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한 친구가 안 좋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노래를 듣기가 거북해 나는 다른 노래를 하자고 부탁했고 그 친구는 그렇게 해 주었다. 나는 우리 모두 그러한

상황에서 그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음악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나는 우리가 좋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안다. 음악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해 주고 의로운 행동을 하며 대적의 유혹을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책자, 2011], 22~23쪽 참조)

의로운 노래를 부를 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

글쓴이는 필리핀 케존에 산다

좋은 음악을 선택한다

“음악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악하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도 있습니다. 가사나 박자, 강렬한 소리로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저속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악한 행위를 조장하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음악은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2쪽

여러분의 미래를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지식이라는 연료를 채워 넣어 배움이 여러분을 데리고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얇은 벽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던 때만 해도 우리가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모니카 가르시아 애덤스

우 리 자매 선교사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외 지역에 있는 작은 쓰레기 처리장 근처 깊은 산기슭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한 여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솔대드라는 이 여성과 남편 오스카는 길고 좁다란 가옥의 방 한 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은 사실 양 옆으로 벽이 매우 얇았으며 여러 개의 방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 방은 창문 하나, 문 하나, 식탁과 침대가 하나씩 놓인 매우 협소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이 여러 채 있었는데 모두 초가 지붕과 흙 바닥으로 된 목조 건물이었다. 그리고 진흙으로 갈라진 틈 사이를 메워 어느 정도 추위를 막아내고 있었다.

경청하는 솔대드

세 아이의 엄마인 젊은 솔대드는 삶이 버거워 지쳐 있었다. 집안일을 하고 매일같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우리의 방문을 반기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듯했다.

솔대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와 사랑에 빠져 함께 가출했다. 둘 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직업도 없었으며 미래는 불투명했다. 솔대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지, 혹은 그들이 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벌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다.

남편 오스카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싸구려 장식품을 집마다 다니며 팔았다. 돈을 좀 번 날이면 음식을 사기도 했고

때때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한 날은 종종 우울하고 화가 난 상태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현세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영은 또한 우리에게 때때로 그들의 발전이 실망스럽더라도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속삭였다. 몇 번 더 방문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와 몰몬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기도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설명하자 솔대드는 속상해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가족을 버린다고 느꼈다. 이제 곧 넷째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화가 난 그녀는 우리에게 당장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함께 듣고 있었던 후안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옆방에 살던 후안은 우리가 하는 말을 벽을 통해 듣고 있었다. 그는 젊고, 호기심이 많으며,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후안은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구원의 계획, 몰몬경, 회개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솔대드에게서 몰몬경을 빌려다 읽고, 귀동냥으로 배운 것에 대해 기도도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다. 후안은 우리가 솔대드와 오스카를 가르치러 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한 겨울 폭풍우가 일기 시작한 날, 그는 솔대드에게 우리가 어디에 살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모른다고 하자 후안은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솔대드에게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간증을 전하고는 폭우로 온통 진흙탕이 된 밤거리로 뛰쳐나가 우리를 찾아 헤맸다.

피곤하고 추웠지만, 후안은 여러 시간에 걸쳐 계속 우리를 찾았다. 그는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침례를 받고 평생 그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솔대드는 후안의 간증에 감명을 받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도하기 시작했다. 후안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틀간 몰몬경을 읽었다. 솔대드 역시 간곡하게 기도했고 오스카와 이야기했다. 그들은 함께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다

폭풍우가 오고 이틀 후, 동반자와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 산 기슭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로 다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곧바로 출발했고 도착했을 때는 솔대드와 오스카,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후안이 우리를 행복의 눈물과 흥분으로 맞아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날 이후 모두들 열의를 다해 복음을 배웠다. 얼마 후에 후안이 먼저 침례를 받았고, 솔대드와 오스카 역시 뒤이어 침례 받았다.

문득 솔대드와 오스카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왜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지 의구심을 느꼈던 때가 생각난다. 또 화가 나서 우리를 내쫓은 그들에게 왜 급히 돌아가라는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나 후안의 삶에, 그리고 솔대드와 오스카 가족의 삶에 찾아온 기쁨을 보면서, 나는 얇은 벽을 통해 후안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각자가 드린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닐 엘 엔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배우십시오

선지자들의 권고와 가르침에 기울이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 적극적이고, 면밀하고, 민감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제일회장단에 계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두 분의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권고와 가르침에 기울이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 적극적이고, 면밀하고, 민감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회장단—헨리 비 아이어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묻고 싶은 네 가지 질문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 제일회장단에 계신 세 분의 이름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열다섯 분입니다.
2. 이들 선지자들의 사진을 보여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3.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떤 권고를 주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올해 리아호나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실린 몬슨 회장님, 아이어링 회장님,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염려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4.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열다섯 분에게서 받은 권고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게 된 최근의 결정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방식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참으로 중요한 까닭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의 부름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 그러한 성임을 통해 이런 분들에게 영적인 권능과 엄숙한 책임, 즉 알고 증거하는 권능과 가르치고 축복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한 성임이 또한 우리에게 책임과 약속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듣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제3니파이 12:1) 정말 힘든 시기인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열다섯 사람을 “일상적인 삶”¹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는 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호응한다면, 성신이 그분들의 권고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는 대로 그에 맞게 우리의 행위를 기꺼이 바꾼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은 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영원히 안전하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앤더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기 2년 전 2007년 3월 4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쪽.
2. 살아 있는 선지자의 중요성에 관해, 제4대 교회 회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가 있다 해도, 에녹의 책을 갖고 있거나 번역되지 않은 판들의 기록들을 영어로 갖고 있다 해도, 계시자 성 요한의 인봉된 기록과 다른 모든 계시가 있고 그것들이 여기 수십 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나 세상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Wilford Woodruff [2004],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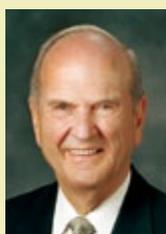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장로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발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베드나



퀸텐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널 엘 앤더슨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시

“우리는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을 갖고 있지만, 살아계신 선지자들과 주님께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계시가 없다면, 이 모든 책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거나, 면밀하게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비록 그 안에 담긴 그 모든 빛이 빛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러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신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맞게 주시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²

President George Q. Cannon (1827~1901),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George Q. Cannon, comp. Jerreld L. Newquist (1987), 252.

카라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진실을
쓸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쓰기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

카라는 연필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종이에 카라의 이름과, 지우개로 지운 자국만 보입니다. ‘뭘 써야 하지?’ 카라는 생각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친구 릴리는 열심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라는 팔에 머리를 문었습니다.

카라는 새로 전학 온 학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카라의 학교는 다른 교회의 건물에 있습니다. 카라가 들어간 새로운 반은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슈미트 선생님이 직접 카라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매일 수학 공부가 끝나면 슈미트 선생님은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한 가지씩 알려 주셨습니다. 보통 그 내용은 카라가 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침례에 대해 배웠을 때, 슈미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 중에도 태어난 직후에 숨을 거둔 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슈미트 선생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카라는 “하지만 죽은 아기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슈미트 선생님께서 그걸 아신다면 더는 슬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카라는 너무 수줍은 나머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카라는 엄마에게 슈미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경 때문에 받은 축복 중 하나란다.” 카라는 슈미트 선생님께서 언젠가 물론경을 읽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라는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슈미트 선생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카라는 두 분이 개별적인 몸을 가지신 분들을 알았습니다. 카라는 부모님께 여쭙어보지 않아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적어 보세요.”

그러자 카라의 뱃속이 아려왔습니다. 카라는 선생님께서 주신 과제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카라는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쓸 수

있을까요?

책상에 엎드린 채, 카라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카라의 마음속에 평안과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성신은 카라에게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쓴다면 어떤 글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카라는 머리를 들고는 연필을 쥐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각자 존재하는 분들이시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살과 뼈로 된 육신이 있으시다. 성신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실 수 있는 영이다.

몇 문장을 더 쓴 후 카라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라는 슈미트 선생님께서 자신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랐지만, 선생님께 중요하고 참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겸손하게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 용감해지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의회장단 제2보좌, “The Restoration,” New Era, Oct. 2011, 5.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충실한 모범

“어린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니파이후서 21:6)

본 부 초등학교 회장단 일원인 저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대로 충실하게 사는 훌륭한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어린이들은 자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도록 이끌어 줍니다.

한번은 어느 총관리 역원이 홍콩의 한 와드를 방문했는데, 그곳 회원들은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독님에게 회원들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수입으로는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사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총관리 역원은 “회원들이 십일조를 내면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독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드에서 가장 충실한 회원들인 초등학교 어린이 몇 명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감독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감독님은 어린이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감독님은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번 돈에서 십일조를 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십일조를 냈습니다!

몇 달 후, 감독님은 와드의 성인 회원들과 모임을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십일조를 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꺼이 십일조를 내시겠습니까?”

성인 회원들은 어린이들의 충실한 모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역시 십일조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모범으로, 그들의 가족은 필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말라기 3:8~10 참조) 모두의 신앙과 간증이 커졌습니다.

어디에 살든 여러분은 훌륭한 모범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콩의 어린이들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모범이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나부 성전과 카테지 감옥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유적지를
함께 둘러봅시다!

제니퍼 메디

18 41년에 나부에 있던 많은 성도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대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나섰습니다. 자매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셔츠를 꿰매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받게 될 축복을 고대했습니다.

성전 완공

성도들은 선지자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브리검 영은 주님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를 받고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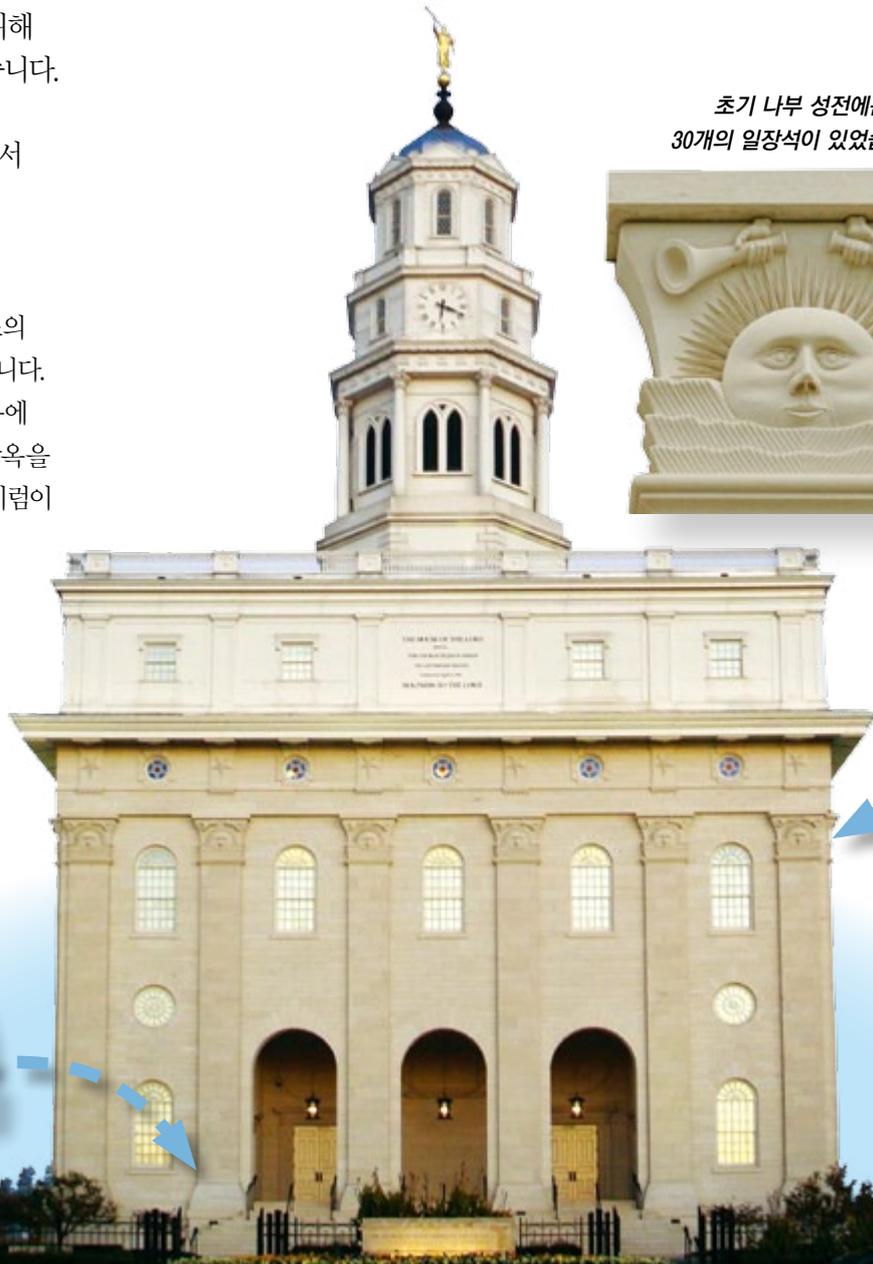
초기 나부 성전에는
30개의 일장석이 있었습니다.



카테지 감옥

1844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죽음으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조셉과 몇몇 사람들은 카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6월 27일, 폭도들이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이 폭도들의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전 외벽에는 초승달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셉과 하이럼의 동상이 카테지 감옥 앞에서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135:3).



폭도들은 조셉과 그의 동료들을 잡으려고 카테지 감옥의 계단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조셉과 다른 사람들은 감옥 위층에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축

성도들이 나무를 떠난 후 성전은 화재와 토네이도로 파괴되었습니다. 1999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나무 성전이 같은 자리에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1840년대에 있었던 성전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성경과 몰몬경을 둘 다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제1 및 2판, 복사금지

우리 구원을 위해 성경과
몰몬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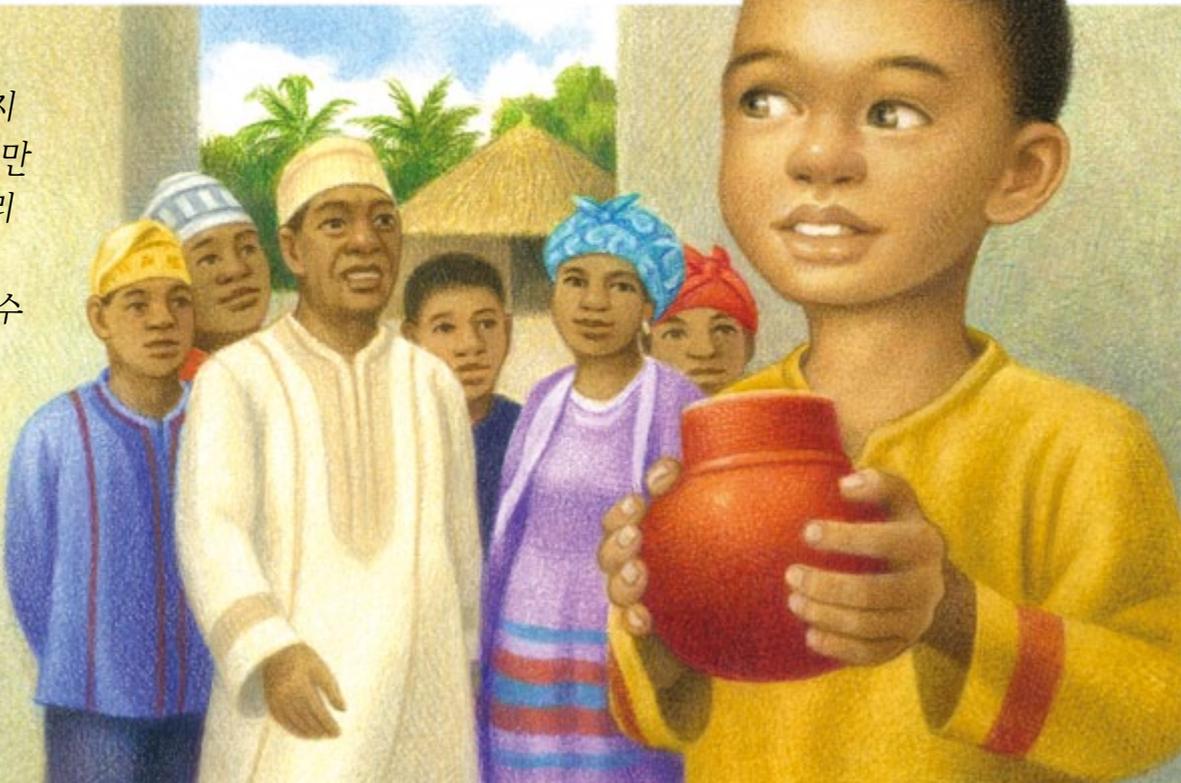
몰몬경이 성경에서 밝히는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인 구주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풍족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저는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에크니 비(7세), 나이지리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앨마서 37:35)

저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고향집에 갔습니다. 3년 만에 가는 것이어서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행복하게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새해 전야에 우리는 모두 각 가족의 장남에게 보호와 장수, 번영을 빌어 주는 전통 의식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장남은 저였습니다. 저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전통 의식의 일부로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무례를 범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배운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옳은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세요.”하고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술을 마셔야 했을

때 두려웠지만 크고 분명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몸은 성전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마을의 원로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차 있구나. 네 생각을 좀 더 듣고 싶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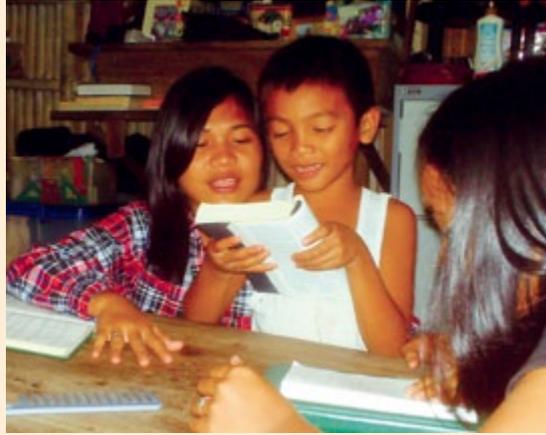
우리 가족과 저는 벌을 받지 않았으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음을 압니다. ■

우리들 이야기



저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의 설거지를 돕는 일이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말고 욕하지도 말며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야세 시(4세), 대만



가정의 밤에 경전을 읽는 프린스와 그의 누이들.

저는 가정의 밤에서 영적인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좋아하고 비둘기를 기르고 돌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언젠가 일리노이 나무 성전에 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됨을 알고 물몬경을 사랑해요.

프린스 엠(9세), 필리핀



마카레나 지(8세), 칠레



생일 축하해요, 제임스 시(5세), 페루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생명 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따를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누엘리스 알(5세), 베네수엘라





사라 지(6세), 과테말라

예수님처럼 되기

어느 날 학교 체육관에서 나와서 보니 제 책가방에 들어 있던 게 모두 쏟아져 나와 있었고 가방에 들어 있던 장난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장난감을 팔라고 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가 제 장난감을 가져갔는지 간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제게 다시 돌려주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제 친구는 장난감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 친구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 행복했고 친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신이 제 친구와 제가 옳은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저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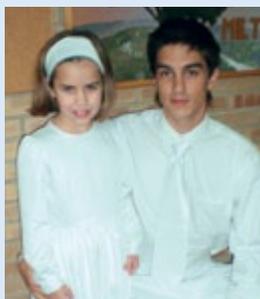
브랜든 에이(8세), 멕시코



저는 여행을 떠나는 오빠들을 배웅하러 어머니와 함께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차가 많이 밀려서

비행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도 이만저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셨어요. 그때 저는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었어요. 오빠들은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라 피(11세), 이탈리아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는 날을 하루 이틀쯤 남겨 두었을 때, 저는 열이 나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례식 날짜를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약속된 날에 받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제 침례식에 왔는데 그중에는 비화원도 있었어요. 침례를 받자 열은 금방 내려갔고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날 저는 성신을 매우 강하게 느꼈어요. 침례와 성신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라 엠(8세), 스페인



침례 받던 날 아버지와 함께한 밀튼

저는 침례 받던 날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아직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밀튼 아론 브이(10세), 에라도르



에라도르 쿠엥카 스테이크 모네이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매디슨은 나쁜 말을 듣고서 울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디슨은 그 소녀가 가여워서 위로해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매디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놀까?”

그날 매디슨은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부를 바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임으로써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기찬 기분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봉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함으로써 생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어떻게 도울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으로 봉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능력과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집안일을 돕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을 축복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부를 바쳐 가족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기로 한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한다.



전부를 바쳐 봉사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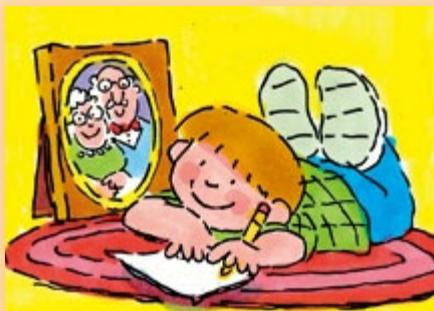
아래 영역 중 하나에서 봉사하고 싶은 방법 한 가지를 고르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봉사를 한 후 설명 옆에 있는 도형에 색칠을 하세요.

마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쓴다.

힘과 능력



부모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한다.



외로운 사람에게 뭔가 친절할 행동을 한다. 누군가에게 웃어 준다.



형제자매에게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형제자매들의 집안일을 돕는다.

노래와 성구

- “주 섬기라”, 어린이 노래책, 94쪽
- 교리와 성약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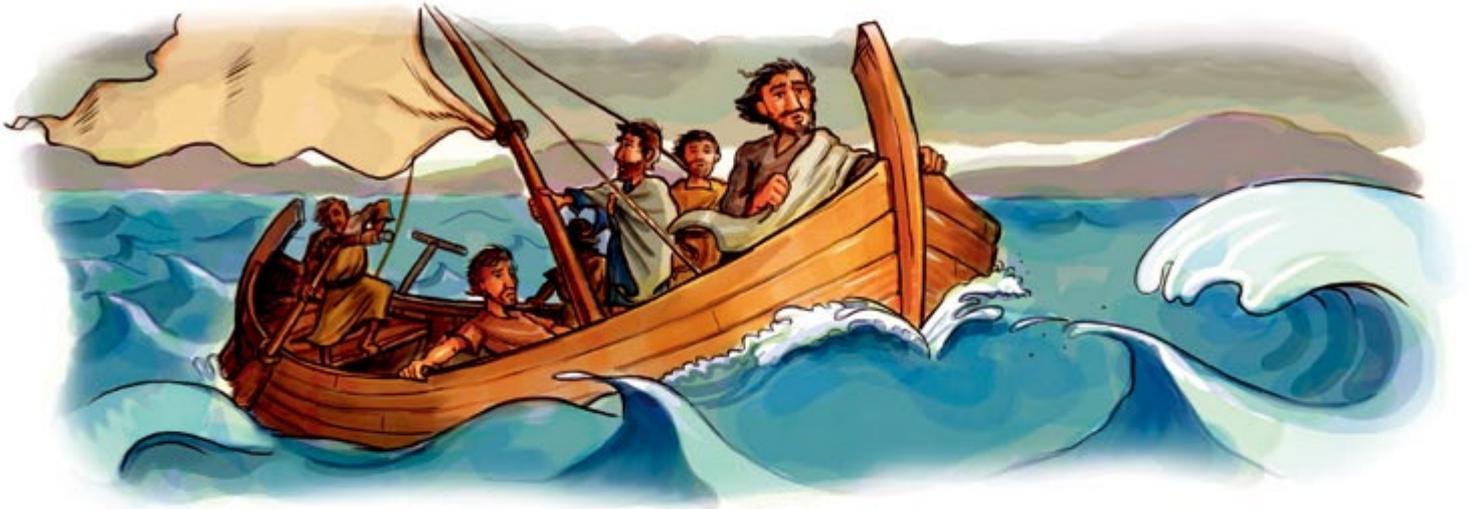
가족 봉사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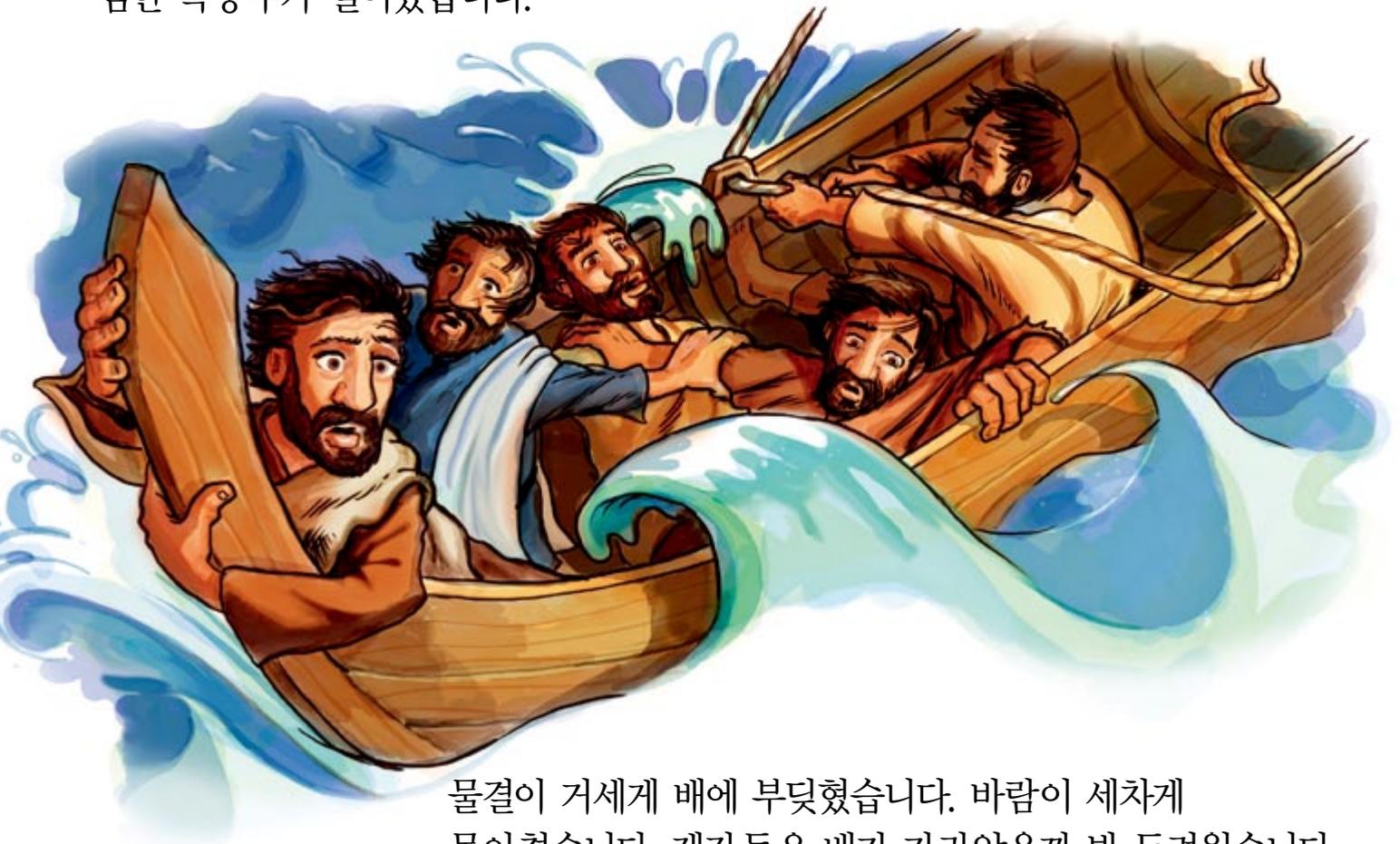
낙엽을 치우고 잡초를 뽑거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한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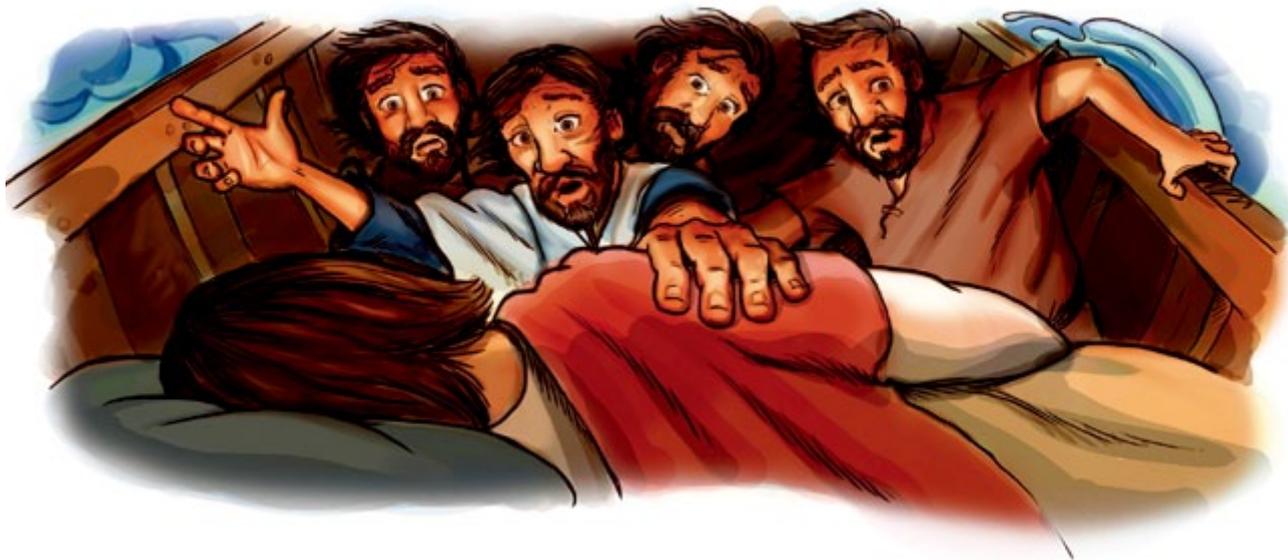
살롯 메이 세퍼드, 미국 유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님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심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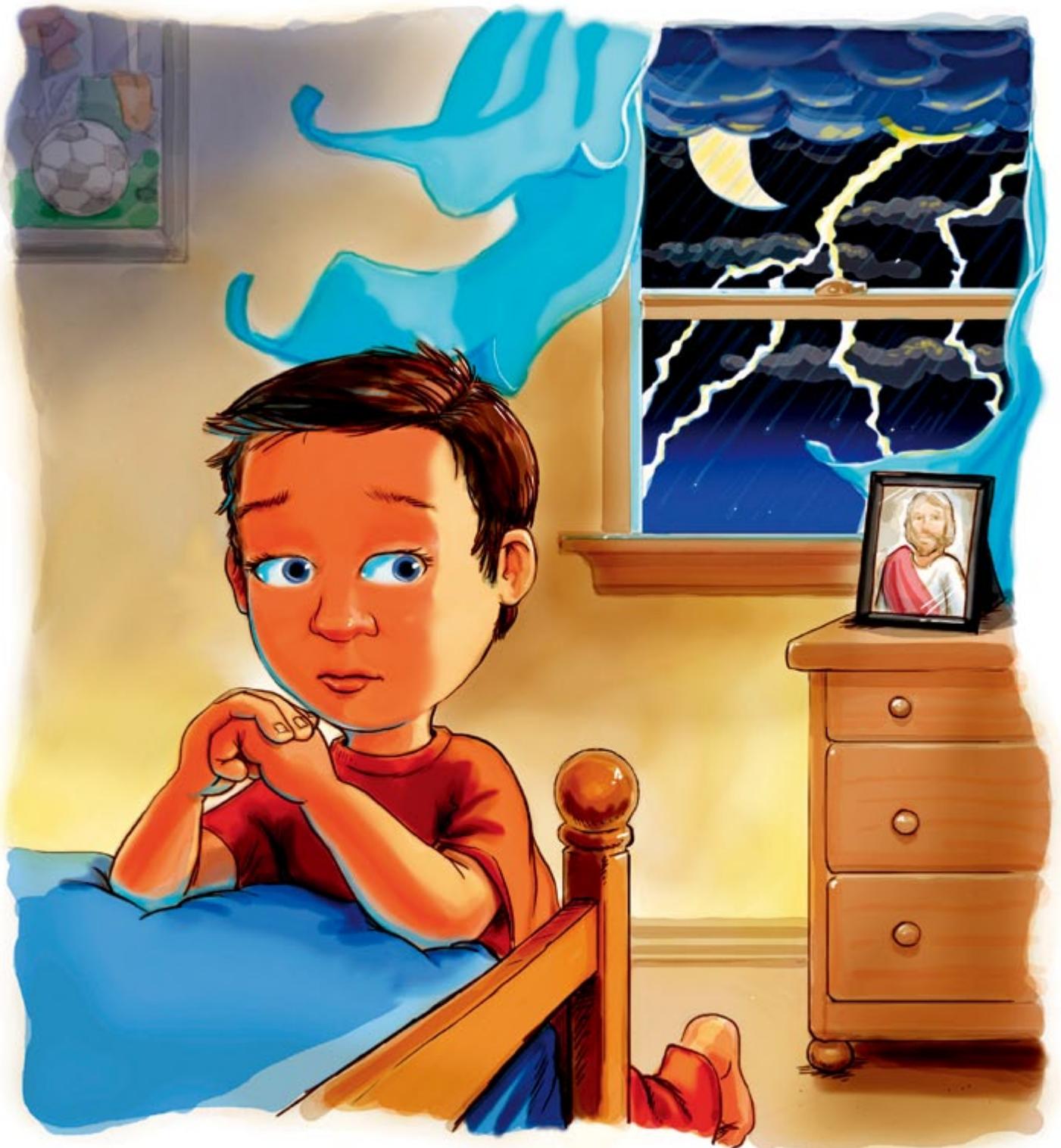
물결이 거세게 배에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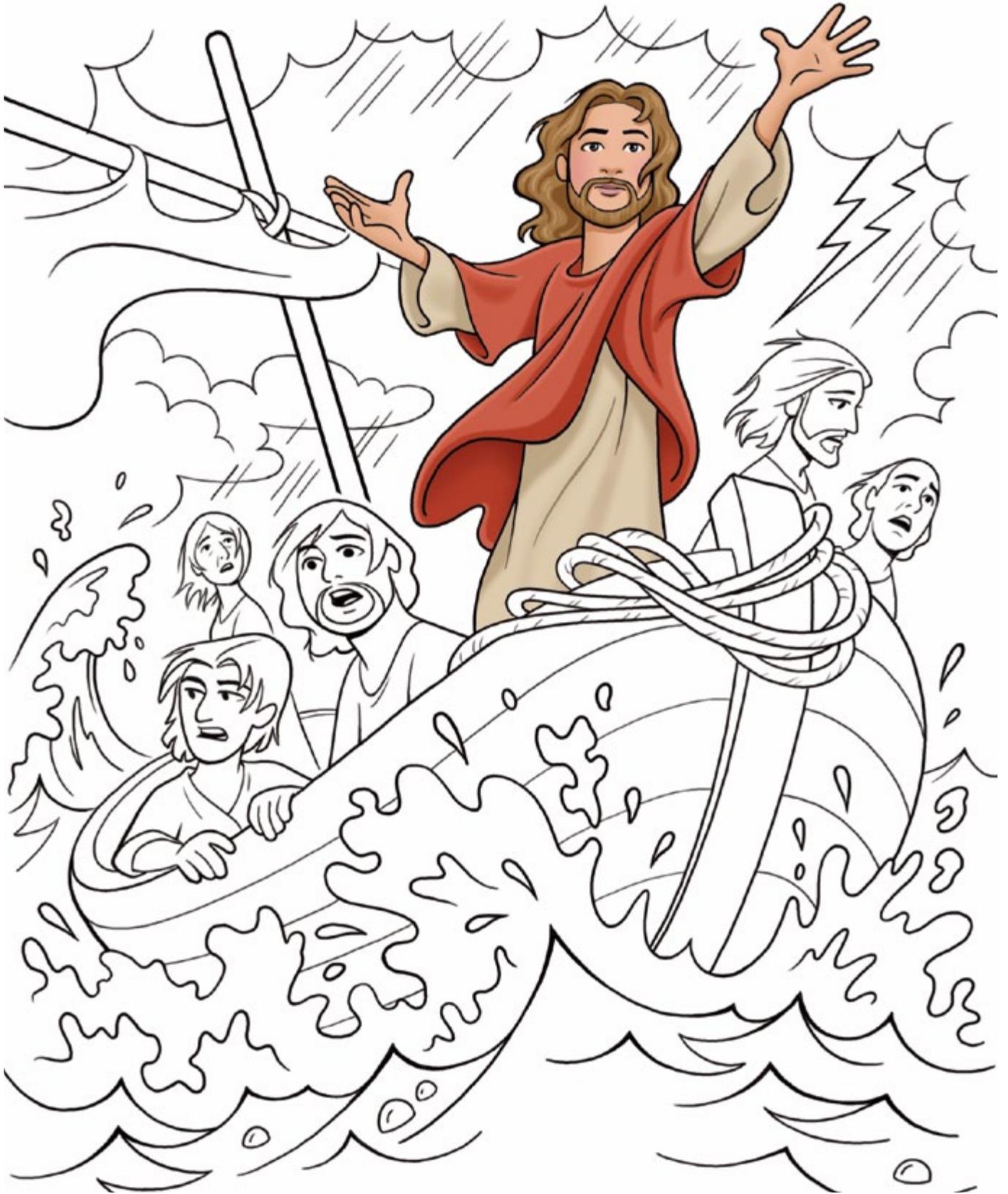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폭풍우를 향해 멈추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찬 파도가 잠잠해지고, 거센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폭풍우에게 멈추라고 명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안전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태복음 8:26)

가장 길었던 성찬식

오킨 에테트 에피웅

나는 후기 성도 종교 서적을 즐겨 읽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서적들을 쉽게 구할 수 없기에 친구에게서 그런 책들을 빌린다. 며칠 내로 책들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책들을 갖고 다니며 짹짹 읽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고등평의원 자격으로 한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러 가면서 친구에게 빌린 책을 가지고 갔다. 나는 감독에게 스테이크 회장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그 책을 읽었다. 감독이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문자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1보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1보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후 나는 연단 위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내 친구의 책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모임이 시작되기 5분 전이었고, 감리자가 이미 연단에 앉아 있던 상황이라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를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성찬식은 내게 괴로운 시간이 되기 시작했다. 여태껏 참석했던 성찬식 중 그렇게 길게 느껴진 성찬식은 처음이었다.

나는 시간이 얼른 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모임 순서는 전혀 끝날 것 같지



성찬식은 보통 70분간 진행된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그날 성찬식은 하염없이 계속되는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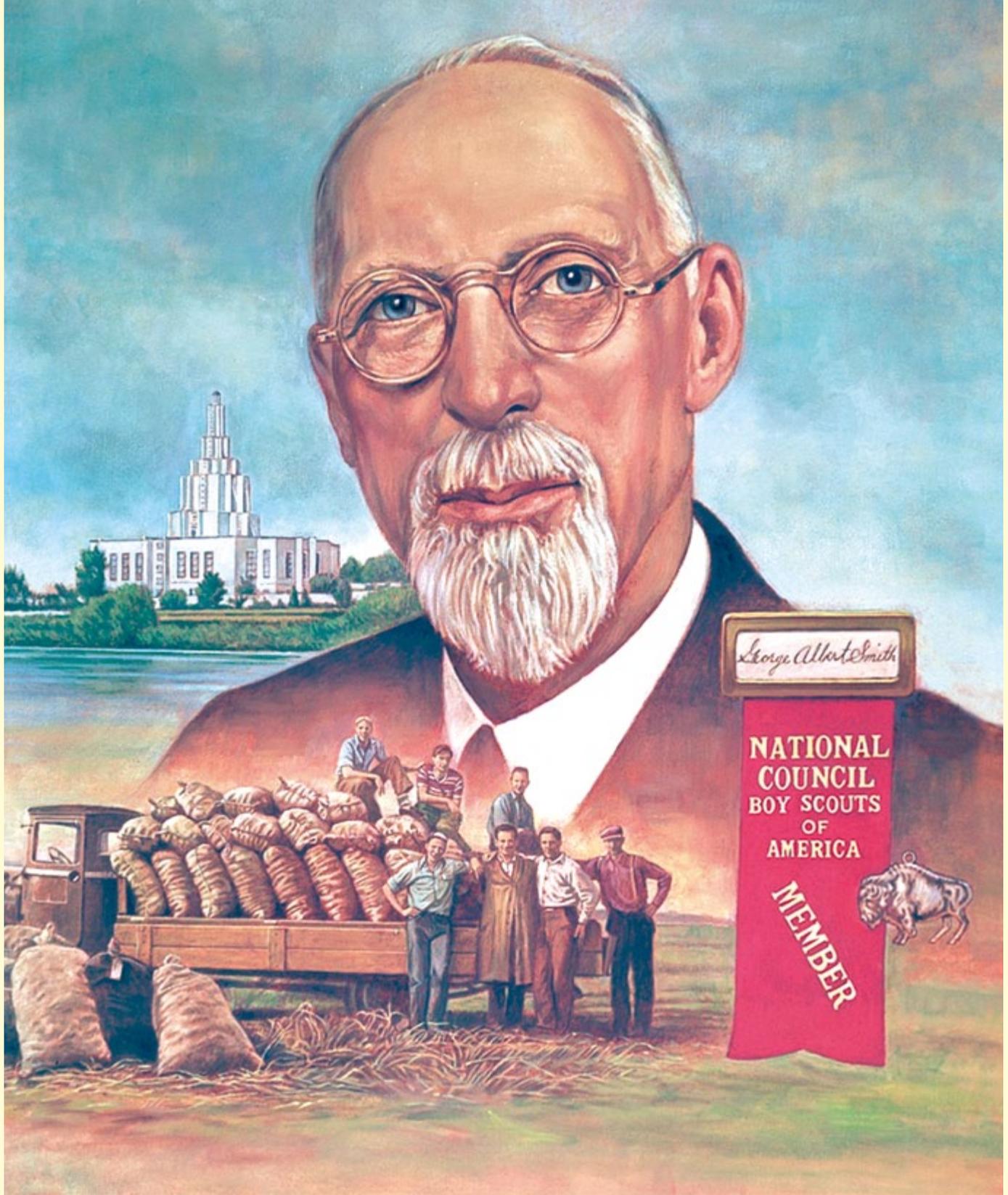
않았다. 나는 초조해졌고 하나님께 그 책이 안전하기를 조용히 간구드렸다. 사실 연사들의 말씀은 그다지 길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모임이 끝나기 5분 전쯤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제1보좌에게 쪽지를 써서 내가 그의 옆에 책을 놔 두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가 머리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폐회 기도 동안 눈을 감지 않고 그 책이 있을 만한 곳 두 군데를 면밀히 살폈다. 나는 필요하다면 주일학교 시간에 책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찬식을 마쳤을 때 내 기분은 갑자기 변했고 더는 책이 걱정되지 않았다. 성신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그 짧은 순간에, 내 걱정이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보라고 명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임을 배웠다. 내 머릿속에는 곧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것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내 영혼, 내 가족, 내가 가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 내가 봉사하는 와드 회원들, 성전 사업이 필요한 조상들.

나는 영혼을 성찰하게 하는 경험을 한 후에 책을 찾았다. 하지만 가장 긴 그 성찬식이 끝날 무렵, 나는 또한 내 삶에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선 순위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글쓴이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산다.



삽화: 로버트 티 버넷

조지 앨버트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21세 때 교회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첫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보이스카우트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봉사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사도로서 봉사하면서 몇몇 국내의 농업 기구의 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기사에서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엉겅퀴를 심는 것에
비유했다. “우리는 작은 엉겅퀴를 심었지만, 몇
년 후에는 사방으로 마구 뻗으며 자라난 엉겅퀴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여
자비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홀런드
장로의 권고는 20쪽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